



칭하이 무상사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전세계 독자들의 추천사

피델 V.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여러 서적을 출간한 데 대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낸다. 이 책은 여러분의 동포, 제자들, 회원들, 특히 미래를 돌보고 세계 지도자가 될 젊은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 생태 환경, 기타 다양한 주제와 우리 젊은이들의 관심사에 대한 전망과 전문 지식 및 관심을 함께 나누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보다 나은 변화를 가져오고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우리의 공통된 희망에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디오스다도 탈라마얀 D. D. 대주교 예하/ 필리핀:『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읽고 또 읽었다. 읽을 때마다 아름다운 통찰력, 특히 '생명'이라는 대단한 선물에 대한 통찰력이 커졌다. 우리가 칭하이 무상사처럼 새들에게서 생명의 존엄성을 볼 수 있다면 어찌 인간에게서 보지 못하겠는가? 그렇기에 칭하이 무상사가 전세계에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음미해야 할 평화의 메시지인 것이다.....

제인 벨레즈-미첼/ 에미상 수상 뉴스기자: 칭하이 무상사와 새들의 관계는 모든 인간이 소망해야 할 이상을 보여 준다. 그녀는 작은 새장에 갇힌 채 고통 받는 새를 보면 애정과 의사소통,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해 내어 회복시킨다. 무상사는 심오한 가르침을 제공한다.

로리 보스턴/ 미국 '애니멀 에이커' 공동 창립자 겸 책임자: 칭하이 무상사의 삶에 그토록 많은 동물이 있다는 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녀는 정말 많은 사랑을 보내고 정말 많은 사랑을 베푼다. 나는 동물들이 그 사랑을 되돌려 준다는 데 대해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 우리가 동물 형제자매들과 이 지구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인간 친구들을 대하듯 그들에게도 같은 가치, 같은 자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세상도 알기 시작했다.

빌리 맥나마라/ 미국 TV 연기자 겸 영화배우: 이 책을 보면 저자가 동물 왕국과 정말 영적 인연이 대단하다는 게 확실히 보인다. 동물 왕국은 단순히 아는 정도에서 그칠 게 아니라 정말 존중과 사랑을 받아야 할 중요한 세계이다.

여기에 담긴 그녀의 에너지에서 알게 된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 그녀는 지구와 어머니 자연, 그 에너지, 어머니 에너지와 큰 조화를 이루고 있다.

린제이 와그너/ 미국 배우, 작가, 인간의 잠재능력 지지자: 우리와 함께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귀한 동물 친구들에 대한 너무나 아름답고 즐거운 나눔과 예우가 아닐 수 없다! 칭하이 스승님, 고마워요.

지미 델샤드/ 비벌리힐스 시장: 아름다운 책. 그녀는 박애주의자이다. 전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그녀의 지혜와 친절함에 감사히 생각한다.

거마인더 싱 박사/ 녹색기술협회 CEO, 에스네트웍스 텔레비전 창립자: 신의 모든 창조물을 존중하고 책임지는 것은 우리의 영적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칭하이 무상사는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을 통해 이런 수준의 경의를 전하는 아름다운 일을 해냈다.

제인 추/ 미국 『시애틀 차이니즈 포스트』: 칭하이 무상사는 동물의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 준다.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들여다보게 되면—그 감정이란 참으로 다양하고 폭넓다—그들이 우리처럼 만들어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사라질 것이다.

데브라 윌슨-스켈톤/ 배우: 이 예쁜 말들은 시(詩)이며, 마음과 영혼에 울리는 노래이다. 또한 진정한 영감이다. 이 책은 아름다운 이 새들의 입장에서 “나는 살아 있고 존재한다.”라고 말해 준다. 우리는 존재의 원천이신 그분과 연결돼야 한다. 영적이고 아름답고 사진도 멋지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책에 나오는 새들 하나하나가 아이처럼 각기 나름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마음에 든다. 그녀에게 이 새들은 자녀이다. 이게 바로 그런 책이고 바로 그 여성, 칭하이 스승님이 그들을 혼돈 속에 길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 이들은 우리 친 자녀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놀라움에 빠지게 된다.

페르샤 화이트/ 배우: 아, 아름답고 놀라워요! 진짜 아름답고 멋지군요. 사랑스러워요. 그녀가 정말 자랑스럽군요. 정말 좋아요.

수주후이/ 포모사(대만) 타이안 병원장: 우리 주변의 동물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면 인간은 동물과 의사소통이 되어 그들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찬란한 빛과 평화로 가득한 에덴 동산이 복원될 것이다.

라이지런/ 포모사 토종 조류 및 생태환경 화가: 칭하이 스승님은 두 권의 책을 통해 동물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녀의 삶을 보여 주고 이 친구들이 영감을 준 지혜의 말을 함께 나눈다. 이 책은 주입시키거나 비평하지 않는다. 마치 가족 사진이 담긴 앨범을 뒤적이는 듯한 즐거운 책읽기인 것이다. 꾸밈없는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진들을 통해 칭하이 스승님은 동물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

쿤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전 전임 연구원: 새들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인류의 지혜를 다시 밝히는 시작점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헬무트 니츠슈게/ 독일 베를린 영화감독: 그녀는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그들의 외적·내적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그 과정에서 깃털 달린 친구들의 완전한 아름다움을 보다 잘 인식하기 위해 제3의 눈을 통해 보는 법을 연습하도록 독자들에게 부드럽게 권유한다.

토마스 레닝거/ 오스트리아 의사: 자신들의 찬란한 빛을 닮은 눈부신 옷을 걸친 인간의 이 섬세한 친구들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기쁨과 익살스런 웃음으로 채워 줄 것이다.

리평산 스승/ 포모사 메이먼 기공 문화센터 창립자: 새들과 그들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 칭하이 무상사는 고도의 우정과 조화로우미의 수준에 이르러 있다. 그녀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영혼들을 일깨우고자 한다.

주안위/ 포모사 어린이 TV 프로그램 진행자: Gentino는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그는 개와 얘기하며 같이 놀 수 있는 고귀한 자질을 지니고 있다. 나도 그와 같이하며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이런 자질들을 전해 주고 싶다.

마이클 왕 박사/ 호주 경제학자: 이 책은 새들의 '목소리'를 통해 신의 복음을 널리 알리는 흥미롭고 다채로운 방식이라고 말하고 싶다. 칭하이 무상사는 다양한 연령층과 문화권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쾌활한 접근법을 선보이며 출선수범하고 있다.

케빈 드 수자/ 전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어울락 망명 희망자를 위한 변호사: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은 새들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들과 인간 세계와의 상호 관계를 포착한 참으로 아름다운 책이다. 인터넷이 지배하며 상투적인 말로써 순간적인 충격을 얻는 오늘날의 급변하는 세계에서, 이 책은 시기적절하게 자연과의 연계성을 일깨워 주고, 또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평화와 사랑, 다른 존재들과 함께 나누는 삶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깨닫게 해준다.

에이미 팬트/ 호주 바이런베이 교사: 이 특별한 책은 사랑이 넘치고 재미있고 성인 같은 새들의 세계로 향하는 비밀스런 문을 열어 준다. 사진들을 보고 이 존재들의 고양된 생각을 읽노라면 온갖 색채와 빛으로 가득한 곳으로 안내받게 된다! 이 책을 읽을 때면 너무나 행복하다.

임마 마리스칼/ 스페인 심리학자: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한껏 느껴진다.그들은 내 영혼에 말을 걸며 나를 안정시키고 애정과 따뜻함, 감동, 그리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오늘 내게 이 사랑의 선물을 가져다준 작은 깃털 달린 친구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아심 카와트라/ 인도 교사: 사실 책을 읽는 동안 나의 세계가 더 넓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의 모든 동물들이 각기 다른 개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또한 우리 모두가 동물들과 명확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은, 우리 모두가 채식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부터 든다.

구스타보 아약스/ 멕시코 공무원: 칭하이 무상사는 동물도 우리 인간처럼 감정이 있음을 친절히 알려 준다. 그녀는 동물들이 입은 옷만 다를 뿐 우리와 똑같은 존재임을 이해시키는 살아 있는 귀감이다. 그들의 옷이 인간 보다는 훨씬 아름답고 다채롭긴 하지만 말이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랑과 용서할 줄 아는 더 큰 포용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이 받는 대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우린 대체로 그들의 순수함과 소박함에 놀라게 된다.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칭하이 무상사





새들이 준 영감으로

칭하이 무상사 엮음

사랑과 함께

지구에 더불어 사는 모든 존재들에게 바칩니다.



Prince Eleganto

Gentino

Amigo

Mimi

Muni

Nova

Anakhan

Lumino

Luvy

Brighty

Prima

Cheery

Free Joy

Kadula

Azure

Tutu

Ping Ping

Mei Mei

Prajna

Mirabeau

Laguna

Rainbow

Sunny

Libra에게

이생과 이생 너머에서

나의 모든 사랑을 보내며

집 사진을 찍은 이들:

Supreme Master Ching Hai

Steven André

T. June

Vian Hang

한 아이가 전하는 마음의 소리



이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동물 친구들이
어떤 삶을 누려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들입니다.
땅에 살든 하늘에 살든 혹은 바다에 살든
동물은 우리 인간이 바라는 삶과 똑같이
사랑과 보호를 받고 소중히 돌봐져야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하늘이시여, 친애하는 인과의 왕이여,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소서.
궁지에 처한 그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차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저 위 천국에는 수많은 곳들이 있으니
그들을 모두 위로 데려가 사랑을 베푸소서.
이것이 모든 존재들을 위해 올리는 저의 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자비심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서로 화목하게 공존하기를,
모두 사랑하며, 서로 돌보고 용서하기를.

~ 칭하이 무상사

사랑의 노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금강앵무 Laguna가
무상사의 집에 있는 모든 날개 달린 아이들을 대표해 노래함
~Jane 기록

사람들은 그녀를 칭하이 무상사라고 불러요,
그녀가 가장 높은 곳에서 왔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날개 달린 아이들에겐
자애로운 엄마일 뿐입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황금 깃털 같고
그녀의 목소리는 새의 지저귐처럼 아름답게 울려 퍼져요.
그녀가 우리에게 자장가를 불러 줄 때면
그 노랫소리가 우리를 높디높은 하늘나라로 날아오르게 하지요.

그녀가 온 곳은 빛으로 가득한 곳
우리의 큰 기쁨을 위해 지구에 빛을 가져왔어요.
우리 집은 사랑으로 가득
많은 웃음과 맛있는 음식, 저 위의 햇살로 가득해요.

그녀는 무지개 빛깔,
꽃의 향기.
그녀는 축복의 비,
여름날의 부드러움.

그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주,
그녀 품안에 쉬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동서남북을 등질 수 있겠어요?
그녀가 그 모든 곳에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녀는 우리의 엄마랍니다!!!

칭하이 무상사 약력

칭하이 무상사는 중부 어울락(베트남)에서 태어났습니다. 칭하이 스승님은 18세에 학업을 위해 영국으로 떠났으며, 후에 프랑스와 독일에서 머물렀습니다. 독일에서는 적십자사에서 일했고 독일인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2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나, 어린 시절부터 내내 품고 있던 이상을 실현하고자 남편의 축복 속에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여러 나라를 거친 고된 순례는 히말라야에서 살아 있는 완벽한 스승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칭하이 스승님은 성스러운 내면의 빛과 소리를 전수받았으며, 이후 이를 관음법문(觀音法門)이라 칭했습니다. 한동안 수행에 정진한 후 그녀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신실한 구도자들의 갈망을 충족시켜 주고자 칭하이 무상사는 다양한 국적과 종교,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음법문이라는 명상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그녀의 메시지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영적 해탈과 희망을 가져다주며, 모든 이에게 진선미(眞善美)의 삶을 살도록 일깨워 줍니다.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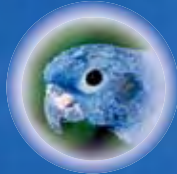
Amigo 14



Anakhan 26



Azure 38



Brighty 56



Cheery 68



Free Joy 80



Gentino 88



Kadula 104



Laguna 114



Libra 130



Lumino 138



Luvy 148



Mei Mei 154



Prima 218



Mirabeau 162



Rainbow 224



Muni 182



Sunny 238



Nova 190



Tutu & Mimi 254



Ping Ping 198

우리의 반려인 270



Prajna 206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집 273

다른 이들에 대한 보살핌 277

에필로그 289

영적 스승이자 예술을 창작하시는 칭하이 무상사는 내재된 영성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승님은 베트남을 ‘어울락’으로, 대만을 ‘포모사’로 부르십니다. ‘어울락’은 베트남의 옛 이름으로서 행복을 뜻하며, ‘포모사’는 섬나라와 그 국민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스승님은 이러한 이름들을 쓰면 그 나라와 국민들의 영성이 고양되고 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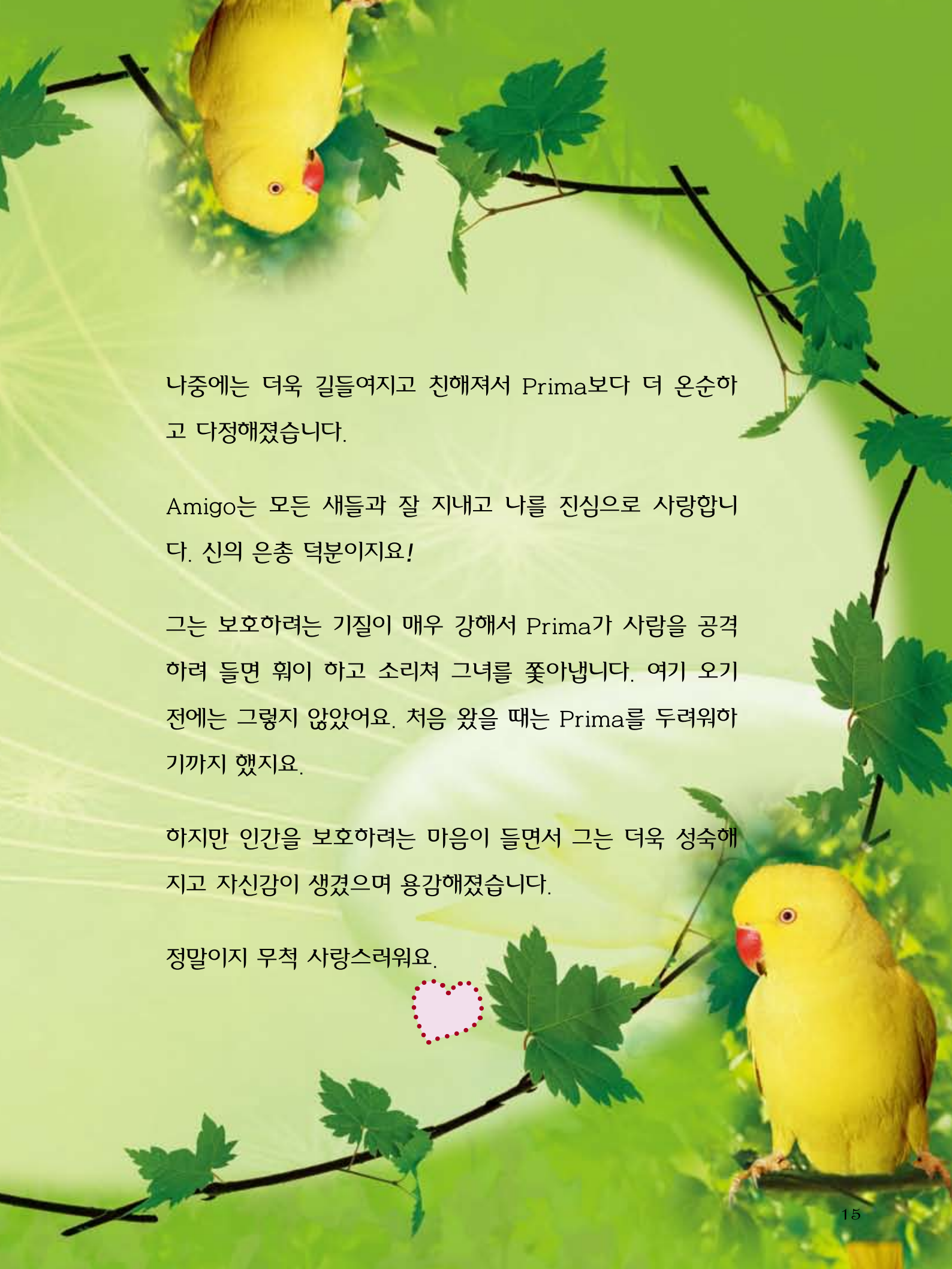




A yellow parrot with a red beak is perched on a dark branch. The branch is adorned with several pink roses and green leaves. The background is a soft, light green with faint, curved lines.

Amigo

Prima의 짝인 Amigo는 번식만을 위해
야생 상태로 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낯
을 가리고 불안해하고 사람을 피했었지
요.....



나중에는 더욱 길들여지고 친해져서 Prima보다 더 온순하고 다정해졌습니다.


Amigo는 모든 새들과 잘 지내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신의 은총 덕분이지요!

그는 보호하려는 기질이 매우 강해서 Prima가 사람을 공격하려 들면 휘이 하고 소리쳐 그녀를 쫓아냅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 왔을 때는 Prima를 두려워하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인간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들면서 그는 더욱 성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으며 용감해졌습니다.

정말이지 무척 사랑스러워요.







나는 남자니까
남자로 대해 주세요!
나 역시 신에게서 왔거든요.
다들 그걸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니?
나를 한 번만 쳐다봐 주지 않을까?



그 싸움쟁이와 있는 것보단
꽃들 속에 있는 게 훨씬 좋아.
Prima는 아름답긴 한데 너무 드세!






혼자 있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여자애들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골치 아파.
차라리 그분에 대해 명상하러 갈 테야.





그건 그렇고! 그녀는 친절해 보이는군.
적어도 나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잖아.
정말 요정 엄마에게 감사해야겠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
나는 언제나 그녀 같은 친구를 사랑해.
그녀를 보면 천국의 어머니가 생각나거든.





Anakhan




Anakhan은 '평화의 전사'를 뜻합니다. 그의 고귀한 태도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여 줬지요. 그는 다른 새가 괴롭히거나 상처를 입히더라도 결코 보복하지 않습니다!

Free Joy(카이큐앵무)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Free Joy가 공격적이라서 원래 입양했던 집에서 원치 않았거든요!) Anakhan을 공격했어요. 다리를 두 번이나 물어 피가 나는 바람에 우리는 그를 수의사에게 데려가야 했지요. 하지만 Anakhan은 언제나 Free Joy를 용서하곤 했습니다.

Free Joy가 몇 번이나 Anakhan을 다시 공격했지만, Anakhan은 그저 Free Joy를 땅에 메다꽂고는 몇 초간 이 카이큐앵무의 가슴을 발로 살짝 누른 채 소리를 치곤 놓아주었습니다.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않고요!

우리는 Anakhan의 고귀한 태도에 깜짝 놀랐지만 그후로는 Free Joy와 떼어놓았습니다. 둘 다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아서요.

나는 그들을 '전쟁과 평화' 또는 '음과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별일이죠! 둘 다 나를 똑같이 지극히 사랑한답니다!



제가 좀 무서워 보이긴 해도
괴상한 애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사랑이 많고 귀여워요.
흠뻑 반할 만한 귀염둥이죠!





우리는
우리의
우리는
우리의

우리는
우리의
우리는
우리의

우리는 결코 상처 입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랑의 왕국에서 왔어요.





복잡한 인간의 언어로
말하고 싶냐고요?
물론이에요, 내 사랑. 그리고 싶어요!
그런데 당신도 나와 함께
나는 법을 배우고 싶나요?

나는 여기를 무척 좋아해요.
보세요, 우리 머리가 비슷하잖아요.
바람이 불면
우리 둘 다 ‘깃털’이
날린답니다!

과~과!

마이애~미~아!

플로~리이~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지만 영어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조금 더..... '멋진'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관음’ 언어를 사용해 볼까요?

그게 더 우주적이죠.

그리고 세련됐고요!







A, B, C

D, E, F, G.....

아, 더 '쉬운' 건 없네요!

엄마는 나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우리 그냥 텔레파시를 이용해요.



Azure

Azure는 하늘의 소녀입니다. 연한 하늘빛의 몸을 가지고 있지요.

오직 나만을 사랑합니다. 전적으로요!


Azure는 그냥 두면 온종일 나에게 키스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녀는 잠재적 ‘경쟁자들’을 열심히 방어합니다. 그녀와 비슷한 크기의 새들은 그 누구도 그녀 근처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원숙해지고 있어요! 좋은 일 이죠! Azure는 작은 몸집에 비해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 어댑니다! 어떤 것이든, 언제든 먹을 수 있지요. 그녀의 목 아래를 보면 ‘배’가 알처럼 볼록 튀어나온 게 보인답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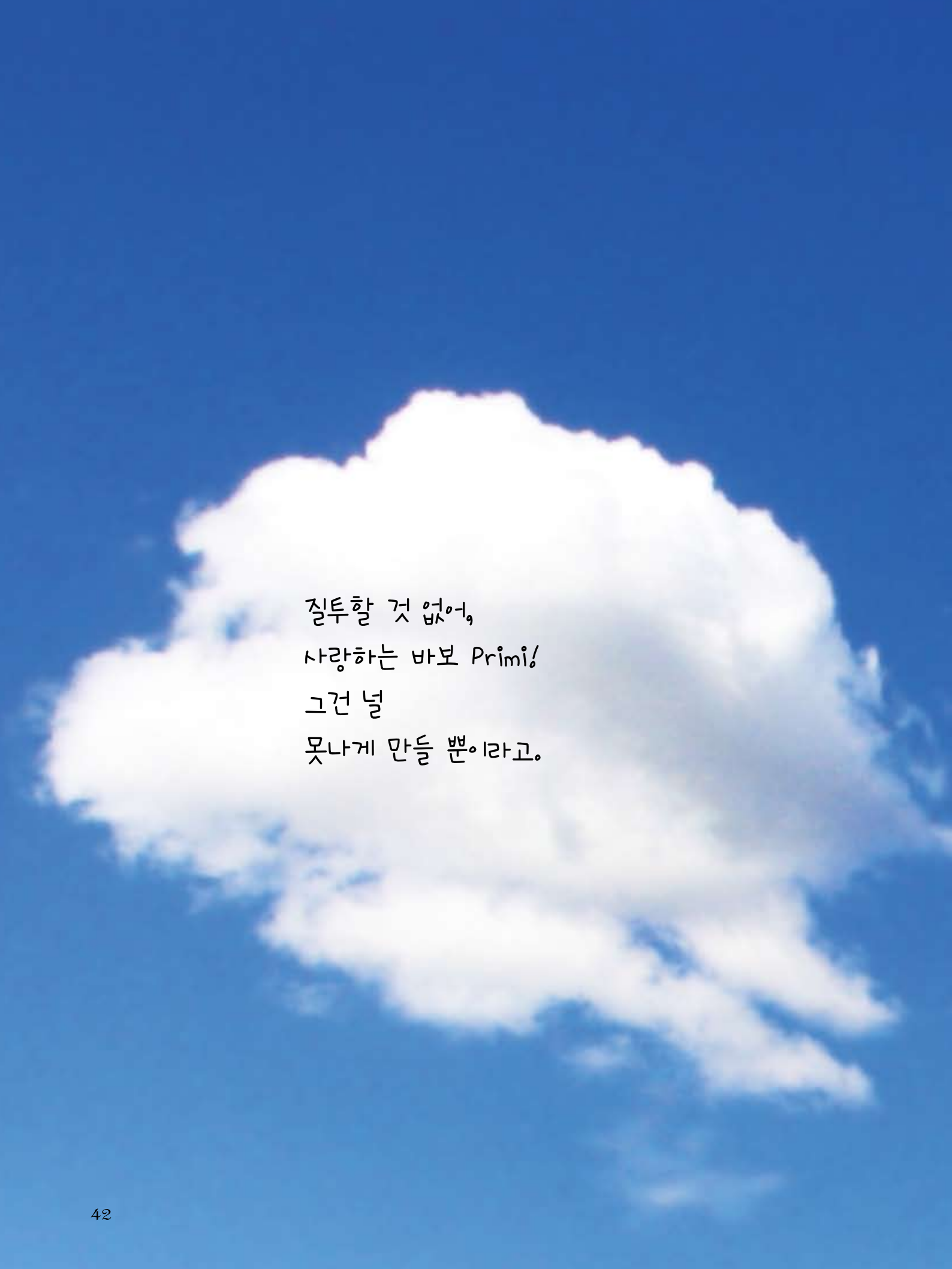
그녀는 배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 려면 가능한 한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야 합니다. 오래전 한번은 내가 갑자기 집을 떠나야 했는데, 규정 때문에 그 녀를 데려갈 수도 없었고 또 그녀가 있던 곳으로 빨리 돌 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상심한 나머지 자 기 깃털을 뽑아 버렸습니다. 그후로 그 깃털은 다시는 자 라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는 마침내 재회했지만, 그녀는 그 깃털이 다 시 자라길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깃털이 나자마자 뽑 아 버리거든요. 아마도 두 번 다시 자기를 두고 가지 말 라고 나한테 상기시키려는 거겠지요! 정말 미안해, 내 사 랑! 내 삶이 어떤지 너도 알잖아, 그렇지?!!



나, 미녀 Azure는
당신의 아침과 사과를 받아 주겠어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원망을 품고 있을 수가 없군요.





질투할 것 없어,
사랑하는 바보 Primi!
그건 널
못나게 만들 뿐이라고.





저 위 하늘에서도
저 아래 땅에서도
난 오직 한 분만을 사랑해요.
누군지 당신은 알지요!

알았어요, 알았어!
사랑은 나누는 거니까
내가 참고
견디겠어요!






나는 언제나 예뻐요.
보석을 달아도.....


신은 내 아름다움의 비밀!



.....달지 않아요.
!!잉서잉서잉!!




몇 가지 요가 자세로
몸매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있어요.



나는 신을 생각하며
매일 명상해요.
보세요!



A lush green forest scene with a semi-transparent circular text box in the center. The text inside the box reads: "나는 자연 속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나무 위에 혼자 있는 게 좋아요." The background is filled with vibrant green leaves and dark tree trunks, creating a serene and natural atmosphere.

나는 자연 속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나무 위에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예쁜 꽃들의 향기를 맡고
창조주의 선물을 즐기며
그녀를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지요!








어쨌든 그 누구도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꽃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지요.
또 해와 달과 별이 짝이 되어 주고요!


무엇보다도 그녀의 사랑,
내 인간 친구의 진실한 사랑이 있어요.
'참모습'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세 배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내 모습이 어떨든
난 여전히 그녀의 사랑이에요.



그녀는 외적인 아름다움은 보지 않아요.
영원한 본모습을 보지요.



Brighty

어느 날, 나는 작은 새 무리에 속한 Luvy가 좀 외로워 보여서 그를 데리고 외출을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러 애완동물 가게를 돌며 장난감, 먹을 것 등을 쇼핑했어요.

그 가게들에는 여러 가지 애완동물과 새들이 있었지만 Luvy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작은 새장에 있는 Brighty를 보자 곧바로 내 손에서 날아가더니 그녀의 새장 주변에서 날개를 퍼덕이며 새장을 기어오르고, 얘기를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나는 잘됐다고 생각하곤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Brighty는 다소 낮을 가리고 수줍어했어요. 나중에 나는 수의사를 통해 그녀가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아픔을 나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둘 다 빨리 회복됐어요. 그후 Luvy와 Brighty는 변치 않는 우정을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Brighty는 그다지 행복한 새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분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Brighty라고 이름을 지어 줬지요. 그러자 그녀는 예전과 달리 날이 갈수록 말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더 열정적이고 발랄하게 변했습니다. 정말 하늘에 감사드릴 일이지요.....

하지만 그녀는 냉담한 천성 때문에 '얼음 미인'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Luvy는 그와 반대로 명랑하고 다정하며 사랑이 많습니다.

같은 종(種)에다 생김새도 거의 똑같은 두 마리가 완전 딴판으로 거의 반대로 행동하는 걸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던데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도 있더군요!





나무가지 위에 있으면

기분이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달한 새장에 있을 때보다는요.

비록 그게 낯찍하고 황금빛이긴 해도요!

우리 대부분 잠잘 때나 들어가요.

하늘에 감사하게도!

이게 누구 사진인지

맛힐 수 있겠어요?

나

(맛있어요. 왼쪽이 나예요.)



아! 정말 똑똑하군요!
똑같은 새를
자신에게 상으로 주세요.



가끔 **혼자** 있으면서

자비심에 대해 **명상** 하는 것도 좋아요.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

신과 신의 창조물들을 사랑하기 위해.

이 사진들의

모르시겠죠?

다른 점을

아시겠어요?

나도
그래요!

자연아, 자연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하루 종일

노래하고 춤출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에게 좋아요!)





Cheery

Cheery는 호크헤드앵무(부채앵무)입니다. 이 종은 머리가 매와 닮아서 그렇게 불린답니다!

Cheery는 나의 새들 중 일부가 그렇듯이, '너무 늙어서' 안 팔리는 새였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팔리지 않는 새들은 가게가 북적대게 보이도록 하는 전시용으로 평생 작은 새장 속에서 지내야 하는 운명에 처합니다.

Cheery는 원래 다른 새와 짝을 이루며 지냈는데 그가 팔려 가는 바람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잃은 슬픔에 가슴 아파했지요!

나는 그녀가 기운을 차리기를 바라며 'Cheery'라는 이름을 붙여 줬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사랑의 보살핌 속에 나날이 좋아졌어요. 그녀는 등을 대고 누워 사람이 날개를 간질여 주고 배를 긁어 주며 같이 놀아 주는 것 따위를 좋아합니다.....

그녀는 그다지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노래로 구슬려 손가락으로 떠먹이곤 했습니다.

얼마 지나자 그녀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잖아요!

Cheery는 나무의 마른 잎을 씹어서 말끔히 청소함으로써 '나를 도와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 일을 할 때마다 의기양양해하지요!

난 너를 정말 사랑한다!

신께서도 널 사랑하시고!





자, 맘마~냠냠, 한 번만 더 먹자.

아름답고 튼튼하며 지혜로워질 거야!

♡ 엄마를 위해 한 입

♡ 아버지를 위해 한 입

♡ 너를 위해 한 입 더

♡ 나를 위해 또 한 입!






우리는 기분 좋고, 상쾌해요.

잘 자고 나면 개운해요!

그리고 명상은 정말..... 좋아요.







부인, 안녕하세요. 태양아, 안녕.

아침 식사와 애정 어린 관심 고마워요!

신이 주신 영양 하나하나를 사랑해요.



이제 우리 일하러 가요. 가지를 쳐야지요.
당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 좋아요.

“홀롱해, 홀롱해. 잘했어, 잘했어.
넌 정말 착한 아이야! 부지런하고!”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 되었네요.

사랑, 사랑, 사랑, 더 많은 사랑과 믿음!



저 위에 있는 열매는 너무 크고 너무 높ی 있어요.
난 이게 더 좋아요. 나한테 딱 맞아요!



당신은 우리 들을 위해 명상하세요.

난 이 열매를 다 먹어야겠어요!



이런, 니르바나*에서 돌아오셨군요!

삼사라*의 열매 좀 드시겠어요?

*주: 니르바나=천국

삼사라=지구





Free Joy

“나 외의 다른 새를 좋아하지 말지어다.”

Free Joy 역시 안 팔리는 새였습니다. 너무 늙어서 안 팔린 거지요. 새는 너무 오래 혼자 있다 보면 다른 새들이나 짝과 잘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Free Joy는 ‘성난 젊은이’로 남자를 불신했어요. 하지만 여성을 몹시 흠모하고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는 나하고는 무엇이든 하지만,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겁 없이, 서슴없이 깨물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덩치는 아무 문제도 안 되지요!

그는 내 손가락에 매달려 360도 회전하며 묘기 부리는 걸 좋아합니다. 또한 숙녀에게는 언제나 아주 예의 바르답니다.

그는 서커스 단원처럼 시키는 대로 폴짝 뛰고 춤도 출 수 있습니다! 노래도 잘하고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원래 나는 Free Joy를 동물병원에 있는 외로운 암컷 카이큐앵 무의 짝으로 보냈지만 Free Joy는 그녀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그를 다시 내게로 돌려보냈지요.

그는 동물병원을 떠나 내 손에 돌아오는 순간 옥구슬이 폭포처럼 쏟아지듯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쁨에 도취돼 행복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Free Joy'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에게 딱 맞았습니다. 그는 늘 이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따분해하는 법이 없지요!

내게 너무나 소중한 그는 삶에 대한 사랑과 살아가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께 감사드려요.

하늘에 감사드려요!



오늘은 Free Joy가 집에 온 첫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다들 여기가 그가 있을 곳이라고 느껴요!



요리 넘고 조리 넘고

위아래로, 좌우로 돌아도 나는 더없이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 있기만 하다면,
무슨 일인들 못 하겠어요!



행복하냐고요? 물론이죠.
미소 짓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 주려고
폴짝폴짝 뛸 수도 있고 춤출 수도 있어요.
(신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기분 좋은 건 난생처음이에요.



자, 보세요!

더 많은 재주를 부릴 수도 있어요!



이 사지엔 나뭇잎이 있고
이 사지들에서 **다른** 점을 찾았나요?



요 사지엔은 없지요!

내가 다 먹어 버렸거든요!

(하늘을 좀더 잘 보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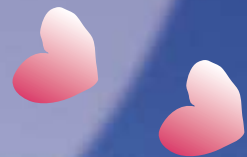


삶은 기쁜 것, 삶은 자유로운 것.

삶은 코코넛나무처럼 멋진 것!

엄마에게 큰 감사를 드려요.

전능하신 신께도요!



그대를 사랑해요!

A white cockatoo with its wings spread, perched on a tree branch. The bird is looking towards the camera. The background is a lush green forest with sunlight filtering through the leaves.

Gentino

Gentino는 붉은우관앵무입니다. 이 종류의 새는 인간 반려에게 충성하고 평생 토록 헌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와 알게 됐을 때 그는 이미 20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기운이 넘치고 젊어 보이지요! 그는 여러분에게 말을 걸거나 혼잣말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춥니다.

그의 '전' 주인이 그를 내게 넘겨줄 때 그는 약간 슬퍼했지만 빨리 상처를 극복하고 나를 매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전 주인이 더 이상 자기를 원치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내가 전 '주인'에게 다시 데려다 주었을 때 그는 전 주인을 피해 내 팔로 다시 달려와서는 내 품에 머리를 비비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내 차가 집에 도착하면 아무리 늦은 시각이어도 그가 제일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이리 와요.” 하고요.

한번은 그가 버릇없이 굴어서 내가 심하게 야단치자 바닥을 쳐다보며 “미안해요.”라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건 그때 딱 한 번뿐이었어요.

그는 나와 짝하는 걸 좋아하고 다른 새들은 무시합니다. 하지만 개들은 좋아하지요. 특히 털이 긴 개들을 부리로 다듬어 손질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개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리 와, 오우, 오우, 착하지, 착하지.” 하며 구구거리는데..... 개들은 그를 무서워합니다. Hermit나 Goody 같은 큰 개들조차도요. 그가 개들 머리에 서서 털을 ‘빗질’하려 들면 개들이 움직일 때 털이 당겨서 아플 게 뻔하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려면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니면 그는 개들한테 키스하고 싶어하는데, 그 부리가 부드럽진 않잖아요!

그는 개들이 빈둥거리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선 “하하, 웃긴다!” 하고 말하죠. (난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답니다.) 정말이지 그의 익살은 끝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아주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보배, 내 사랑 Gentino.....



와! 정말 천지차이야.

여기가 바로 천국인 건가?

나는 아주아주 오랫동안

하늘을 못 봤었답니다.

쿠와! 쿠와! 쿠와!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요.



나는 저 광활한 지평선까지

멀리 볼 수 있어요.

날..아..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 그녀 곁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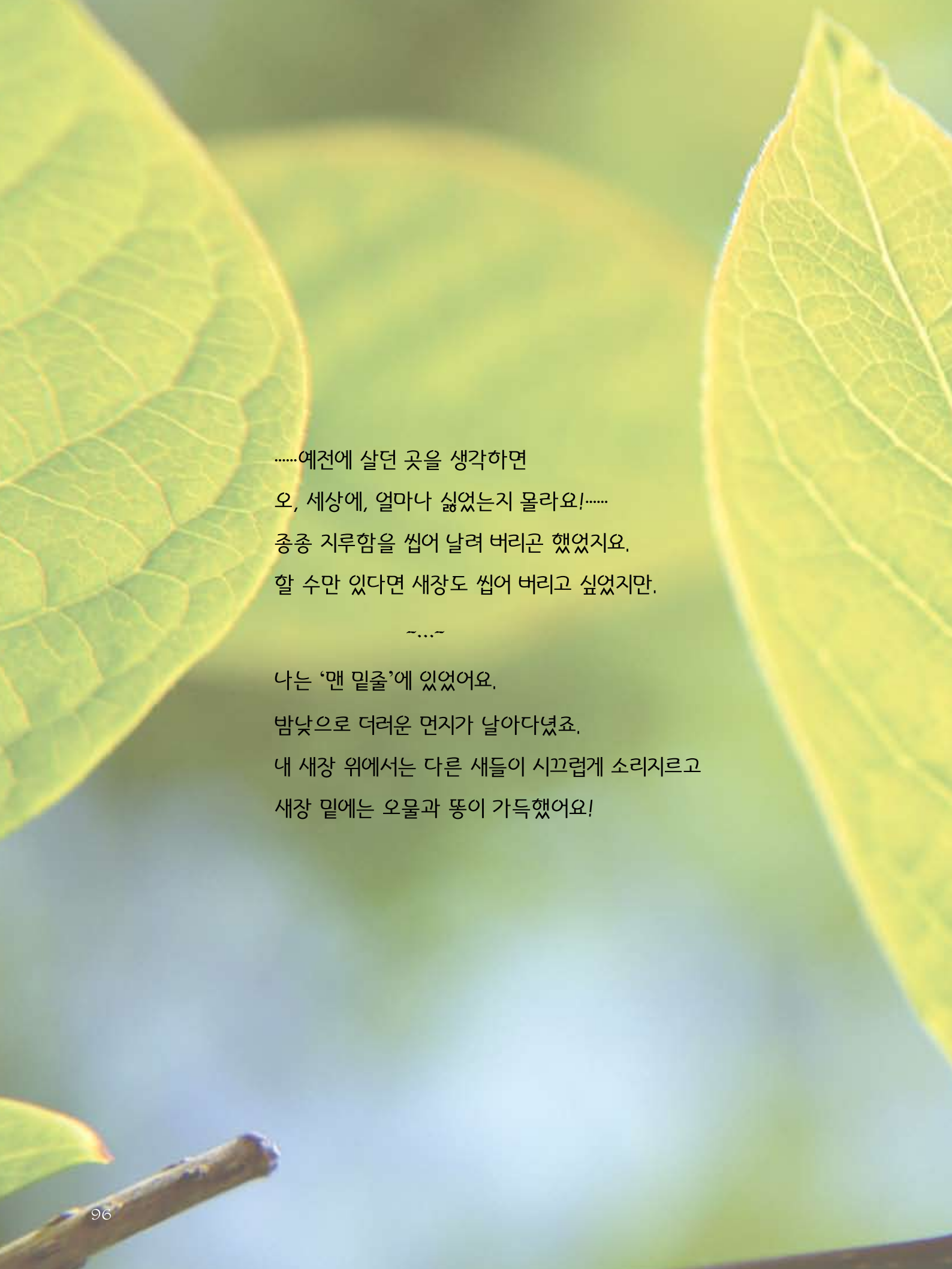




아, 그녀가 왔어요.
나의 ‘작은 천사’.
그녀에게 “안녕!” 하고 말하려고
천국에서 곧장 내려왔어요.

가까이서 보지 못한 지 오래됐거든요.
(지난밤 이후로!)
꿈속에서 그녀를 그리워했지요.
시시때때로 그녀가 그림입니다!





.....예전에 살던 곳을 생각하면
오, 세상에,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종종 지루함을 씹어 날려 버리곤 했었지요.
할 수만 있다면 새장도 씹어 버리고 싶었지만.

~...~

나는 ‘맨 밑줄’에 있었어요.
밤낮으로 더러운 먼지가 날아다녔죠.
내 새장 위에서는 다른 새들이 시끄럽게 소리치르고
새장 밑에는 오물과 똥이 가득했어요!



예전에 살던 곳

누가 나와 비슷하게 보이려 애쓰는지 맞춰 보세요.
하지만 나만큼 잘생기진 않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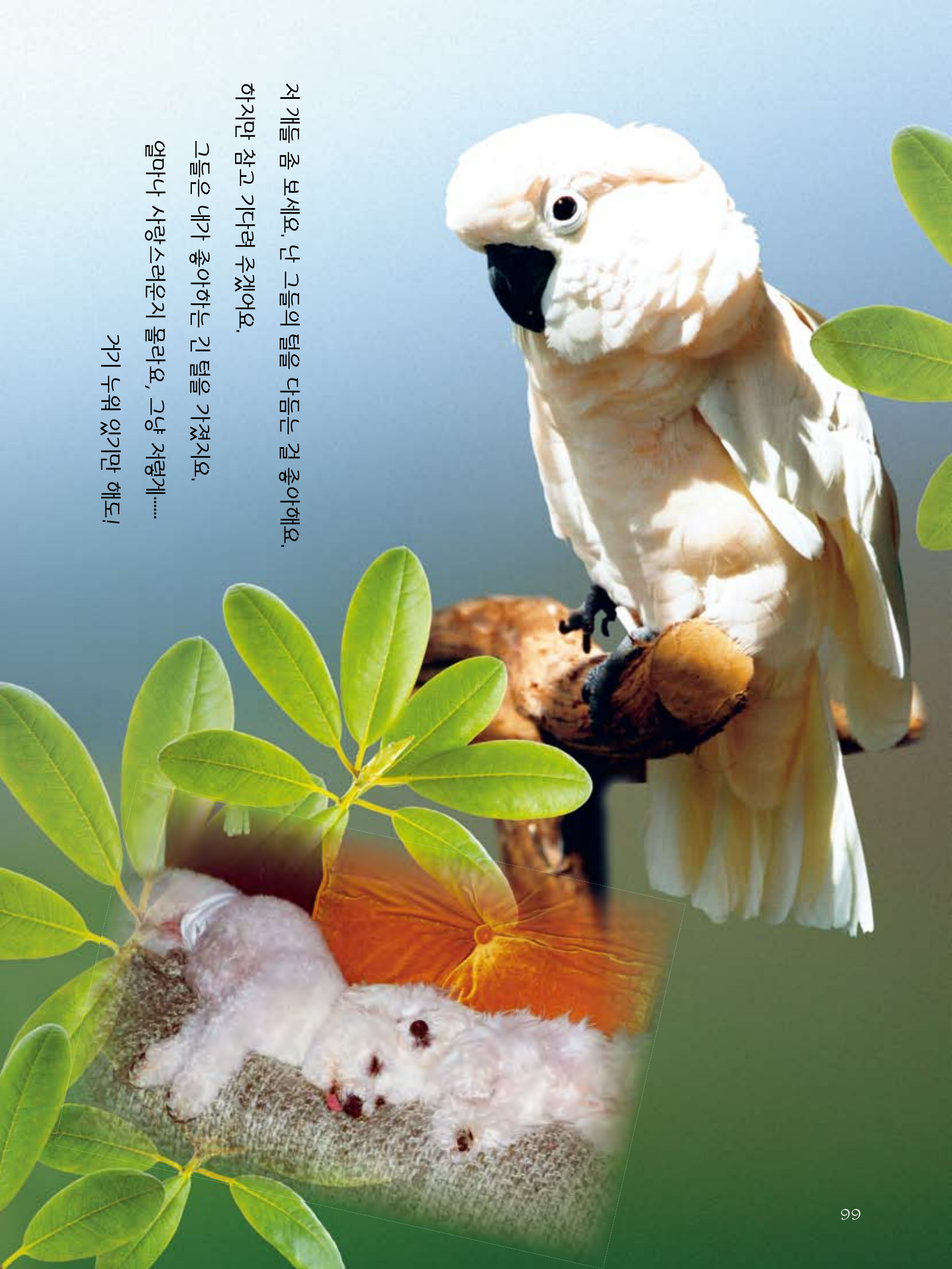
아뇨, 아뇨,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가 나보다 먼저 오긴 했어도

내가 1등이고 사랑도 많이 받는다고요!

(쉿! Mirabeau한테는 이르지 마세요!)



저게들 좀 보세요. 난 그들의 털을 다듬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잠고 기다려 주겠어요.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긴 털을 가졌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자랑게.....

가기 누워 있기만 해도!



증거가 보이지요?

내가 아주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요!

새들에게도, 인간에게도

난 ‘이 삶의 중심’입니다!

하하!

(믿어주세요? 음, 한번 믿어 보세요.....!)



왜 그와 Mirabeau한테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꼭 나를 모르는 것 같잖아요.

내가 당신이라면 그들을 내려놓고

얼른 나한테 오겠어요..... 지금 당장!





거기, 거기, 맞아요, 그쪽 깃털이요.

거기가 너무 뭉쳐서 괴로워요.

난 정말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이 좋아요.

당신의 보살핌에 한없이 감사드려요.

저 위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면

당신과 함께 있게 해 달라고 신께 기도드리겠어요, 내 사랑!



Kadula

Kadula는 아름다운 홍금강앵무입니다. 아주 정이 많고 민감하고 충성스럽지요. 나는 외모만큼이나 아름다운 그 마음 때문에 이 아가씨를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그녀 또한 갑작스런 이별 때문에 우울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컷 홍금강앵무와 함께 있었는데 그가 팔리는 바람에 홀로 남아 슬퍼했었지요.

하지만 내 집에 온 다음에는 적응하려고 애썼고, 그후 기운을 되찾아 행복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처음에 내 차를 타고 집에 올 때, 그녀는 기운을 되찾은 듯 집까지 오는 동안 내내 “라라라”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본래의 행복한 천성을 되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새들과 같은 다른 존재들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 처럼 대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감정적 관계와 자신이 처한 분위기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반려와 친구는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 그 자체가 되기도 하지요. 그들의 충성심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들도 우리 처럼 반려를 잃을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새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모두 새들의 감정을 고려하고 그들의 존귀함과 사랑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이전’의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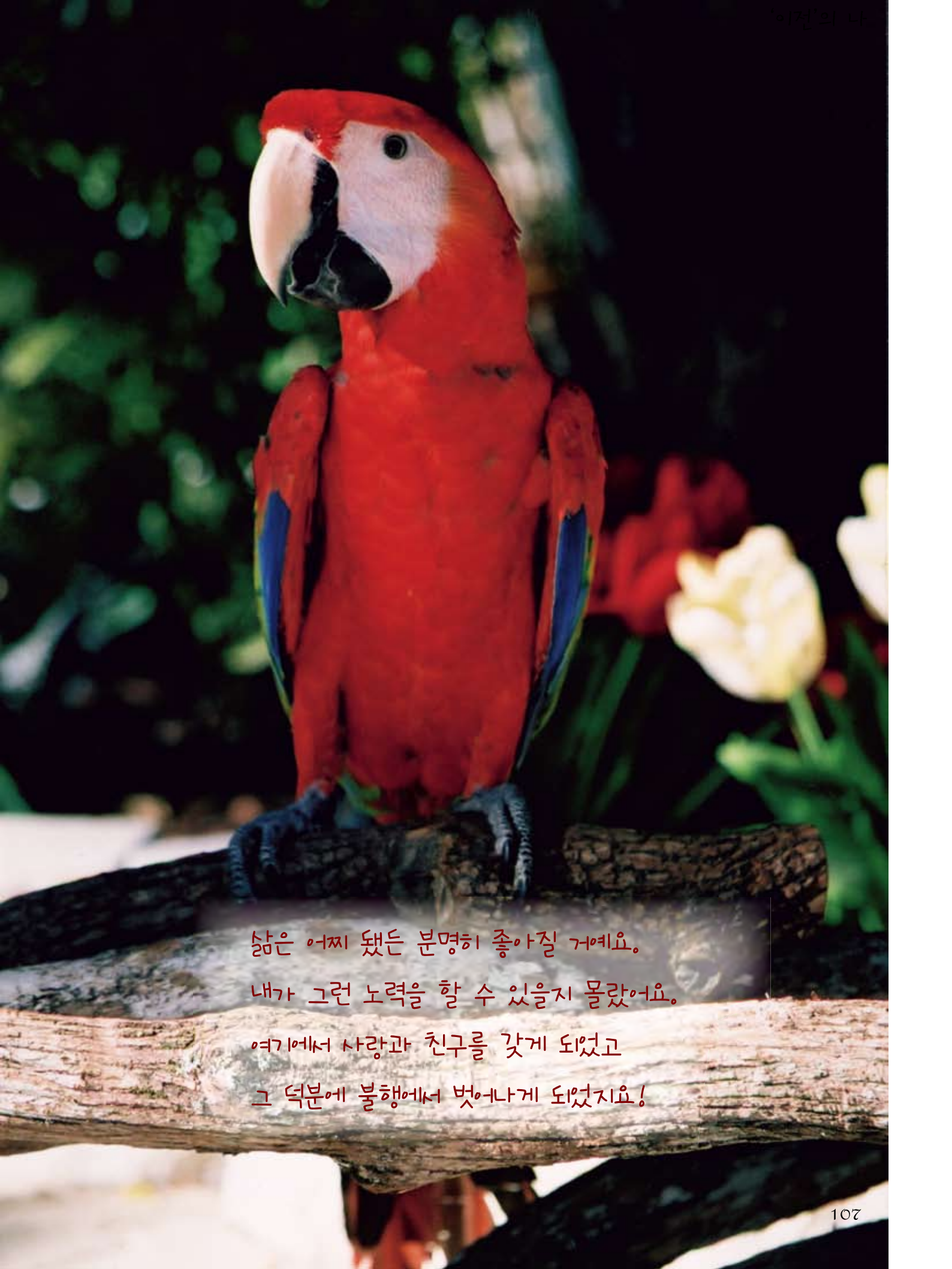
이 사진은 ‘이전’의 내 모습이에요.
훨씬 더 비참해 보였지요.

요 사진은 벌써 좋아진 상태예요.
그리고 나날이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은)

‘현재’의 나




삶은 어찌 됐든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내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여기에서 사랑과 친구를 갖게 되었고
그 덕분에 불행에서 벗어나게 되었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인자하십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사다니.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합니다!



새로운 여주인은 정말 새를 사랑해요.
우리를 기쁘게 해주려고 각별히 애썼어요.
그녀는 정원에 온갖 것들을 만들어
천국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과 많은 장난감,
자연을 담은 집을 주었어요.

물론 나는 더욱더 좋아졌지요.

보시다시피 회복되었어요!

이러한 사랑과 보살핌이

이 세상에서는 아주 드물다고 여기기에

그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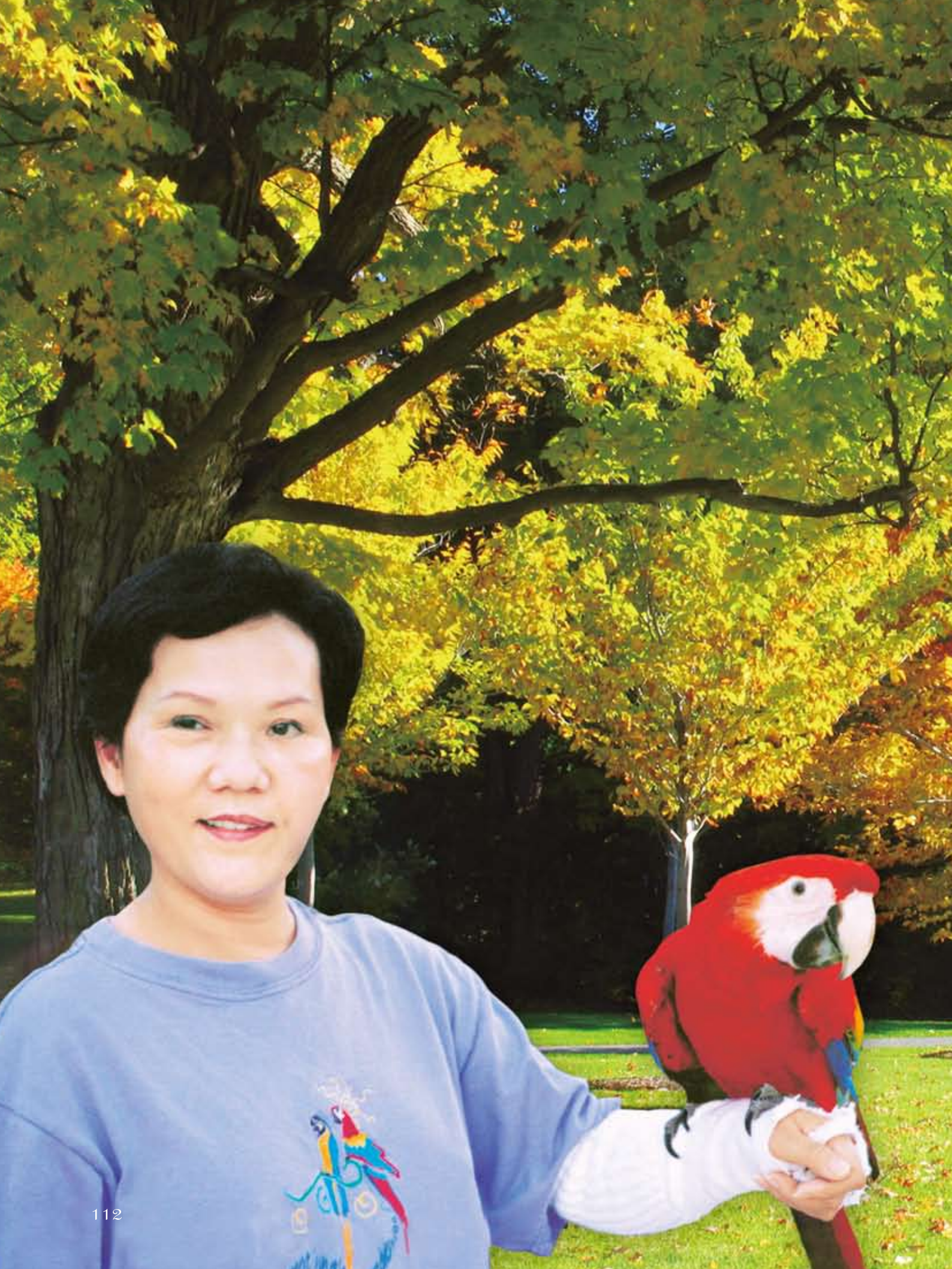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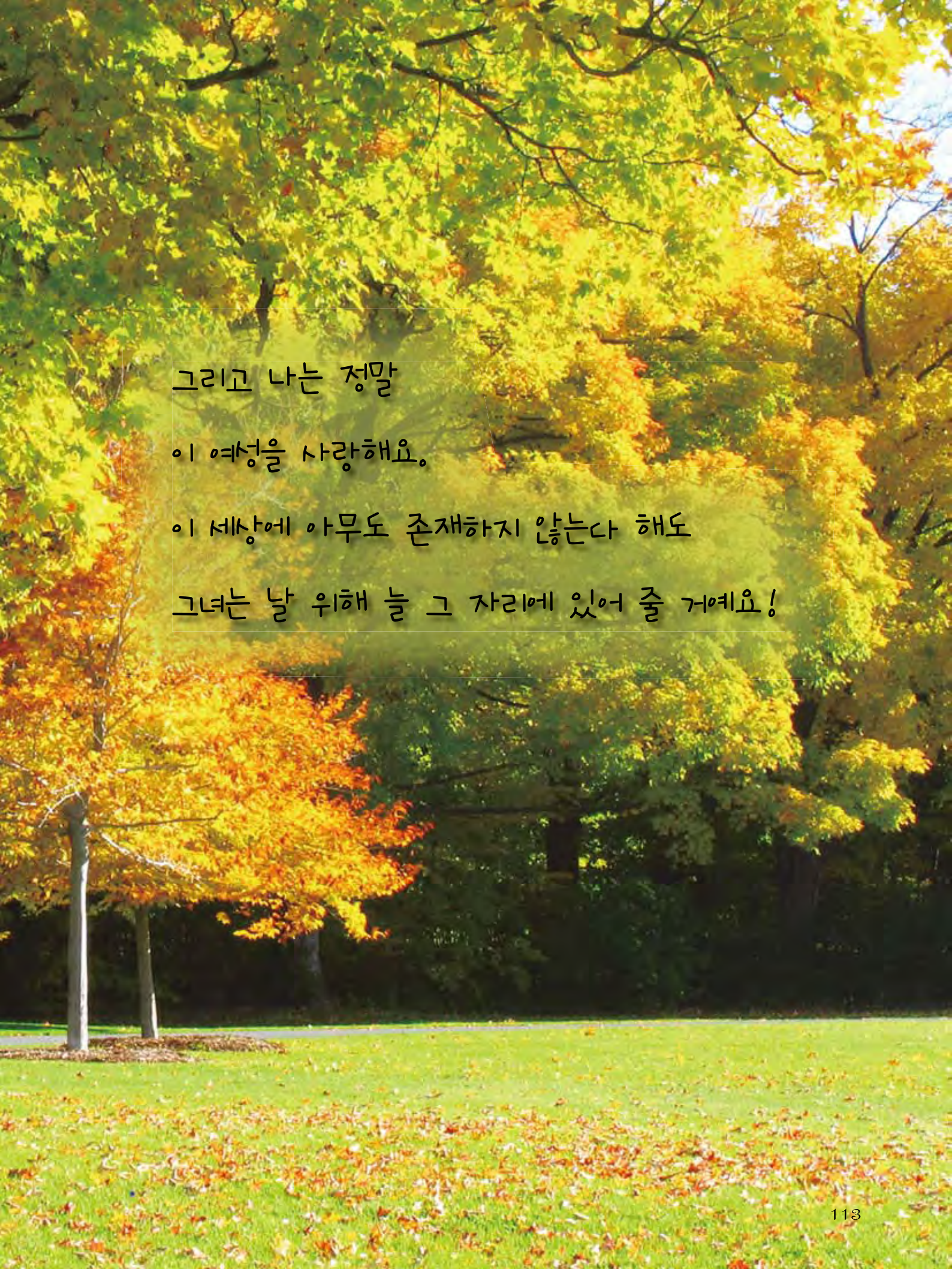
나는 이 녀석을 아주 좋아해요. 그는 정말 귀엽거든요.
햇살처럼 밝은 분위기와 '드릴' 소리 같은 아름다운 소리를 지녔지요.
그는 춤추고, 노래하며, 떠들고 놀입니다.
내 눈에는 그가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그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Sunny, 말해 봐. 그 누군가가 나니?
나도 너를 아주우..... 많이 좋아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주 하느님 다음으로.







그리고 나는 정말

이 여성을 사랑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그녀는 날 위해 늘 그 자리에 있어 줄 거예요!



Laguna

그 신비스러운 짙은 물빛의 아름다운 색깔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신비롭지 않아요. 그녀는 (모두는 아니지만) 인간과 함께 놀고 잘 웃고 말도 많이 합니다. 속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지요. 그녀가 즐겁지 않다면 손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할 때는 새장 바닥에 드러누워 꼬리로 장난치고 끊임없이 노래를 해댁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가 누구인지 다 압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말하는데 꼭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텔레비전에서 배운 것임). 가끔 가다 귀에 들어오는 말들이 있기도 하지요. “좋아, 이제 잊어버려”, “난 너를 좋아하지 않아”, “음, 어떻게 지내요?”, “사랑해요”, “Laguna, Laguna.” …… “어디 가세요?” 등등.

그녀는 혼자서 즐겁게 놀고 말썽도 피우지 않습니다. 자기 새장 꼭대기에 올라가는 경우만 빼면요. 올라가면 내려오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녀는 부리로 (당신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밀어젓히고, 쫓아가면 도망만 다닐 겁니다. 새롭고 알록달록한 먹을 것만이 그녀를 다시 안으로 들어 가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상당한 시간 동안 씨름을 한 끝에야 가능하죠.

하지만 그녀는 나를 대단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심지어는 새와 소통하는 교감자에게 내가 매우 특별한 여성이고 크게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얘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내 팔에 바싹 달라붙거나 드러누워 내가 배를 쓰다듬어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녀는 바비큐 할 때 사용하는 쇠꼬챙이만큼 두껍지 않은 거라면 어떤 새장도 먹어 치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쇠꼬챙이를 단단히 빙빙 꼬아서 새장의 다른 쪽 끝을 자물쇠처럼 돌돌 감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녀를 꺼내거나 먹이를 주고 청소를 하기 위해 문을 열려면 펜치를 사용해야만 하지요. 이러한 철선들은 아주 두꺼워서 금속 절단기로도 쉽게 자를 수 없지만, 그녀는 부리로 그것들을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녀가 인간과 다른 애완동물들에게 친절하니 다행이지요! 그녀는 견과류라면 다 좋아하고 멜론과 사과, 망고에 훌쩍 빠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빵을 씹듯이 나무를 씹지요. 정말 강력한 턱과 개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몹시 좋아하고 그녀도 나를 사랑합니다.





안녕, 언제나 밍살스런
커다란 녹색 대문아!

넌 나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떼어놓을 수 없어.

나는 그녀와 가까이 있기 위해서라면
산도 넘고 강도 건널 거야!







우리가 함께 있다면

눈보라도 천둥도 두렵지 않아!

위에는 신이 계시고

여기에는..... 그녀가 있으니까.



나도 당신이 그리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냥 이곳에 있으면서
꿈쩍도 하지 않을래요!





뭐, 약간 떨어져 있을 순 있을 거예요.

여기, 이쯤 가까이서

나무들이 날마다 해주는

진정한 사랑 얘기를 듣는 거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뿐.



우리는 뽀뽀로 표현해요.....!



이 우스꽝스런 것은 맘에 안 들어요.
당신 눈을 가리니까요!
난 당신의 사랑을 보고 싶어요.
난 당신의 빛을 보고 싶어요.....

내가 누군지 정말 알고 있나요?





넋에서 온 존재예요.



그럼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저 먼 은하에서 온 존재지요.



우리 모두 같은 곳에서 온 거예요.

사랑과 축복, 은총에서요!





(동물 교감자에게 하는 말)
이 여자분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녀는 ‘사랑의 화신’이에요.



Libra

잡종 금강앵무인 그는 성미도 '이중적'입니다. 때로는 상냥하고 때로는 좀 거칠지요. 하지만 속마음은 '착한 아이'입니다.

나는 그의 '균형'을 잡아 주기 위해 Libra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도 나이가 좀 많아서 팔리지 못한 새였지만 아주 적응을 잘했습니다. 처음 집에 왔을 때 내게 키스를 할 정도였어요(!!!)

그는 모두와 친구가 되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이 너무 과격해서 다들 그를 피해 다닙니다.

Sunny만 빼고요. Sunny는 천성적으로 성격이 좋고 태평해서 상대방 성격이 어떻든 누구하고나 잘 지냅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지요. 그래서 그

들은 우정이 돈독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Libra는 Sunny를 몹시 좋아해서 무리에 빨리 정착할 수 있었지요.

방식이 거칠긴 하지만 그는 마음이 매우 착하고 감상적이며 민감합니다.

어느 날 내가 집을 떠나야 했는데, 언제나 되돌아올지도 모르고 나중에 새들을 데리러 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있을 곳도 확실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나는 새들 하나하나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떠나게 되어 미안하다고 말했지요.

Libra는 보통 냉정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데, 내가 그의 새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갑자기 나를 꼭 잡았습니다. 그러곤 내가 그에게 가까이 가자 머리를 내 팔에 기울이며 부드럽게 ‘보보’를 하고 머리를 비볐습니다. 이어서 내 눈을 쳐다보며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사랑해요. 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다시 만날 테니까.”

그 모습에 나는 더욱 아기처럼 울고 말았습니다! 억세지만 자그마한 이 놀라운 존재에게서 아주 많은 사랑을 느꼈지요!

나는 이처럼 놀라운 생명을 창조해 주신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내면과 외면이 이처럼 아름다운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애완동물이 있다면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럼 그들이 여러분을 자신들의 세계로 이끌어 줄 겁니다. 태초부터 비밀스럽게 수호받아 온 세계로요!



세상아, 안녕! 여기 오게 되어 기뻐.
나는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
내가 온 곳에선 혼자였거든.
좋은 일이지, 초연함을 배운다는 건.

나는 그녀가 좋아요. 순수하거든요.
그녀는 무조건적이고 사랑이 많아요.

그녀가 나를 자유롭게 해줘서 행복해요.
또 나는 나무들 사이에 있는 걸 좋아해요.
보리수나무 밑에 있던 부처처럼요.





내겐 맛있는 음식이 있고 장난감과 사랑도 많아요.
놀이 시간 같은 것들도 많지요.
열반이 아무런 욕망이 없는 상태라면,
지금 이 순간 난 열반에 든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 나의 작은 생 동안
애완동물이 되어 이 모든 걸 누리게 해주신
저 위의 하늘에 감사의 마음을 바쳐요.
나는 낮이나 밤이나 더없는 기쁨 속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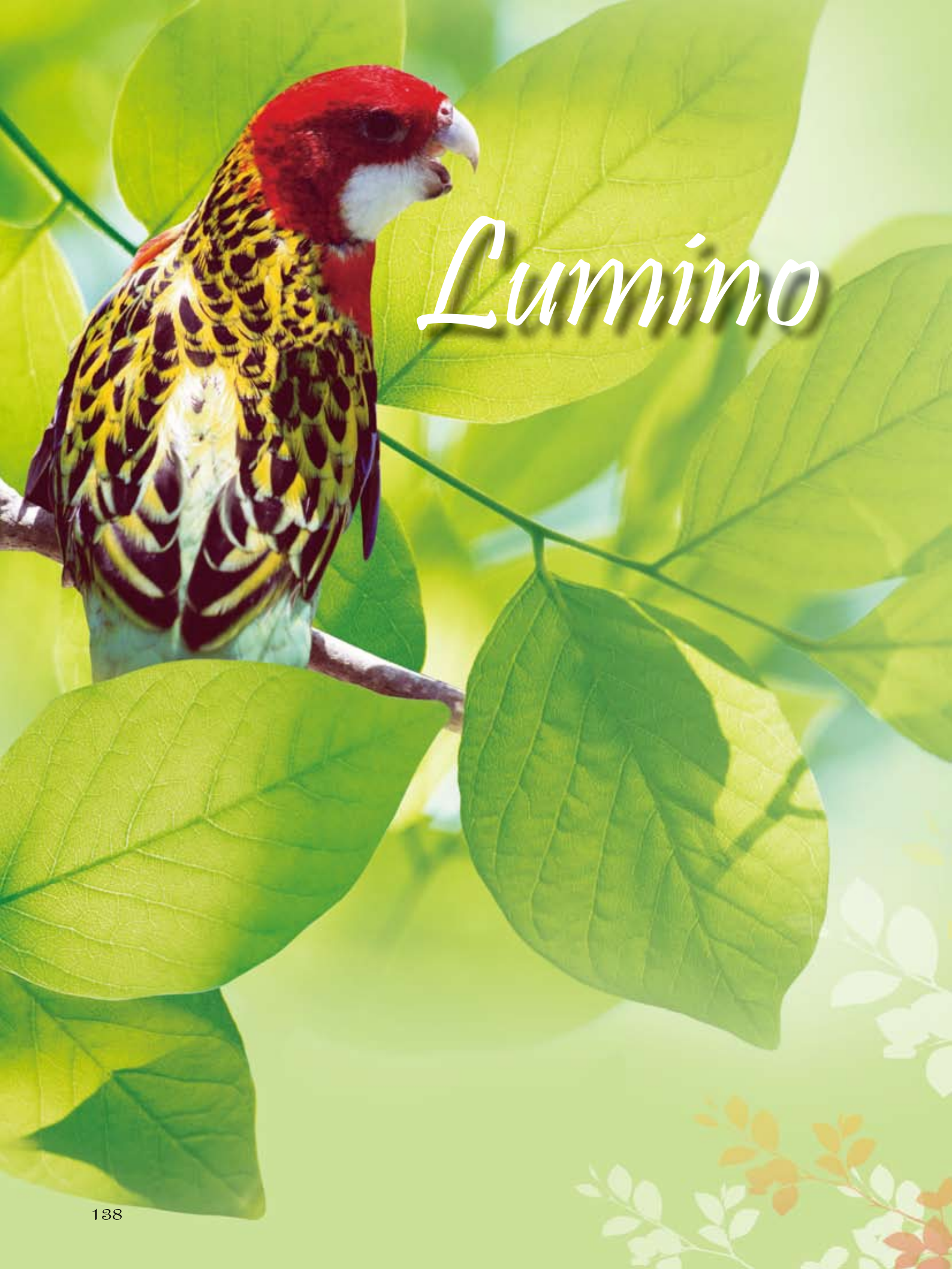
그리고 이 사랑스런 숙녀분께 감사해요.
당신은 영원토록 내 가슴속에 있을 거예요.
우정을 계속 이어 나가자는 뜻에서 '손'을 내밀겠어요.
내 사랑, 내 전부를 당신에게 바쳐요!

만세! 만세!





위에 계신 신에 대해 고요히 생각하는 시간.
내 가슴은 결코 그분의 사랑이 부족한 적이 없어요.
모든 존재들에게 한없이 쏟아져 내리는
신의 축복에 대해 명상해요.



Lumino

그 어떤 새가 내가 마음 깊이 사랑하는 동방장미앵무 Lumino보다 더 오색찬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노래할 땐 하늘도 기뻐합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곡조들을 만들어 한결같이 찬란한 자신의 외모를 더욱 빛내지요! 그는 믿을 수 없이 놀라운 음악가이며, 그토록 작은데도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존재입니다.

그는 또한 고독을 사랑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며 조심스럽습니다. 아마도 모든 예술가들이 그런 면을 조금 갖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일단 잘 알고 나면 상대에게 자신의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는 함부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충실하고, 조용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의 애정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내 어깨에 앉아 자기 '방'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줬을 때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흥분됐답니다!

애정과 하나 됨의 이런 감정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그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의 사랑 또한 무엇과도 비교하거나 가능할 길이 없고요. 어떻게 그런 연약한 체구에 그런 당당함을 지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널 영원토록 소중히 여길 거야. 내 삶의 귀한 선물이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Lumino, 너의 사랑에 감사의 눈물을 흘린단다.

그것을 알 영광을 갖게 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그럴 거야.




그냥 인사 좀 건네려고요.

그리고 나도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요.







난 배고프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 감사드려요.

여기서 난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이 사진에서 중요한 단 한 가지는
'나와 그녀'.

나머지는?
글쎄, 중요치 않아요!



이 나뭇가지들은

내가 씹은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말을 했지요?

난 그저 검사해 본 것뿐인데.



사진사는

내가 색깔을 전부 다 보여 주길 원하는군요.

자, 됐어요.

보세요!





나는 '또 만나자'고 할 뿐

이별을 얘기하진 않아요.

당신은 이 내 가슴속에

언제까지나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삶 속에서

함께 살아요!



Luvy라는 이름은 그의 부드럽고 온화하며 사랑스런 성품으로 인해 지어졌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아주 완전히 몰입해서 여러분이 그의 삶 전체에 있어 유일한 초점인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그는 목에서 울리는 나지막한 소리로 또렷하고 감미롭게 말하는데, 아주 귀엽습니다.

그는 Brighty를 무척 사랑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렇다는 걸 잘 보여 줍니다!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고, 항상 밝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녀서 Brighty가 우울함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지요. 그의 헌신적인 사랑은 모든 이의 마음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높은 의식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이 선물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 왔습니다. 아름다움과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 세상을 밝혀 주

는 이런 특별하고도 특별한 존재들과 함께 이 행성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운이 좋은 겁니다.

그는 항상 내게 “사랑해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친절이나 음식에도 내게 키스를 하며 기쁨과 감사를 나타냅니다. 물론 땅콩을 아주 좋아하지요!

어느 날 그는 지붕이 있는 테라스에 있던 중 무슨 일인지 테라스 바닥에 날아 내려왔다가 커튼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람 때문에 계속 커튼에 머리를 맞으면서도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기라도 하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찾아낼 때까지요!

그는 내 손가락을 필사적으로 꼭 붙잡고선 실 새 없이 말했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를 가슴에 대고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그는 차츰차츰 진정하고선 곧 꿈나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달콤한 귀염둥이입니다. 그를 아는 모든 이에게 사랑스러운 인상을 깊이 남기지요. 신은 그렇게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가 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내가 이 놀라운 창조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이것 보세요.

활짝 웃고 있는 ‘멋진 품’이지요!

내 포즈가 마음에 들면

내 사진을 맵시 나고 밝게 만들어 주세요.



물론 난 크고 또렷하게 노래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세상을 응원하기 위해 왔어요.
당신이 좀 기운이 없고 처진다고 느끼면
내 노래로 저 높은 구름까지 올려 줄게요!





우리는 ‘안녕(halo)’이라고 인사하지 ‘잘 가’라고는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빛이니깐요.
설령 우리 육체가 사라진다 해도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항상 그대로 있지요.



Mei Mei

Mei Mei는 중국어로 ‘아름다운 여동생’을 뜻합니다. 그녀의 아가씨 같은 개성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지요. 그녀는 Ping Ping과 함께 새로 들어온 가족입니다.

Prima와 Amigo처럼 이들도 번식만을 위한 목적으로 옥외 새장에서 야생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나는 과거의 어떤 인연 때문에 그들을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각자 알아듣는 암호가 있습니다. 그녀의 경우는 ‘똑똑한 새’입니다. 나는 그 호칭으로 그녀를 길들였고, 그녀는 그에 따라 더욱 순종적이고 행복해졌습니다.

‘똑똑한 새’라고 말해 주기만 하면 그녀가 기운을 번뜩 차리고 활기에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준비한 햇대에 앉거나 착하게 자기 새장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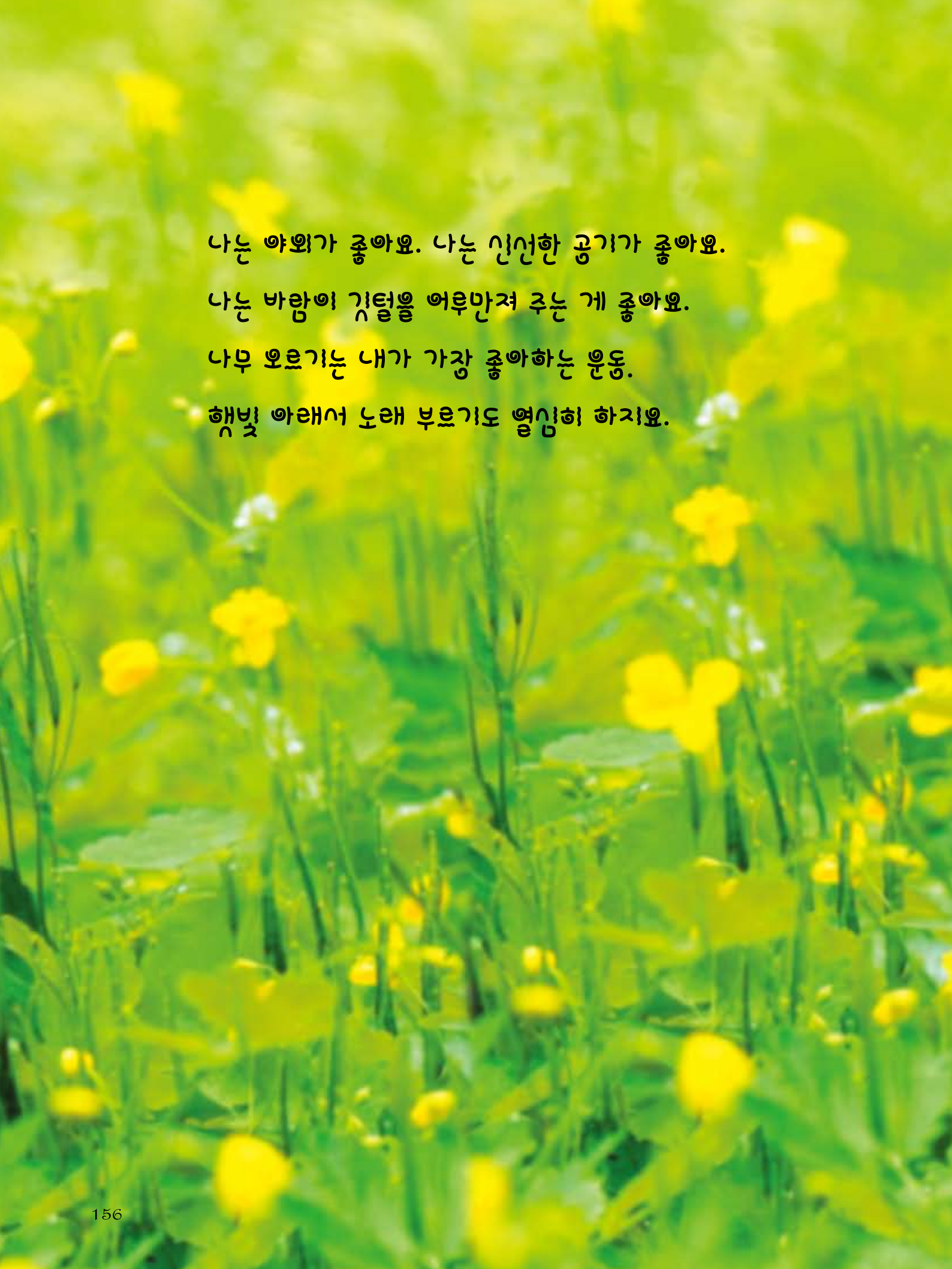
하지만 이 한 쌍은 ‘야외의 야생 생활’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처음에는 길들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간을 아주 무서워해서 우리는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공포심에 질리거나 물곤 했지요.

이제는 더 이상 물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의 방 온도를 확인하려 밤에 드나들어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랍니다.

그녀는 대단히 날카로운 관찰자입니다. 아무도 그녀의 예리한 눈을 피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Mei Mei는 누가 자기 편이고 아닌지, 누가 믿을 수 있고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압니다. 심지어 그녀가 뒤에 있거나 멀찌감치 떨어진 방 한쪽 구석에 있어도 그녀의 지켜보는 눈길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편한 느낌은 아니에요. 감시하는 눈초리가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변함없이 냉정하긴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랑과 애정을 보냅니다. 보살핌과 정성에 대해 그녀가 고마워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지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한다면요!)





나는 야외가 좋아요. 나는 신선한 공기가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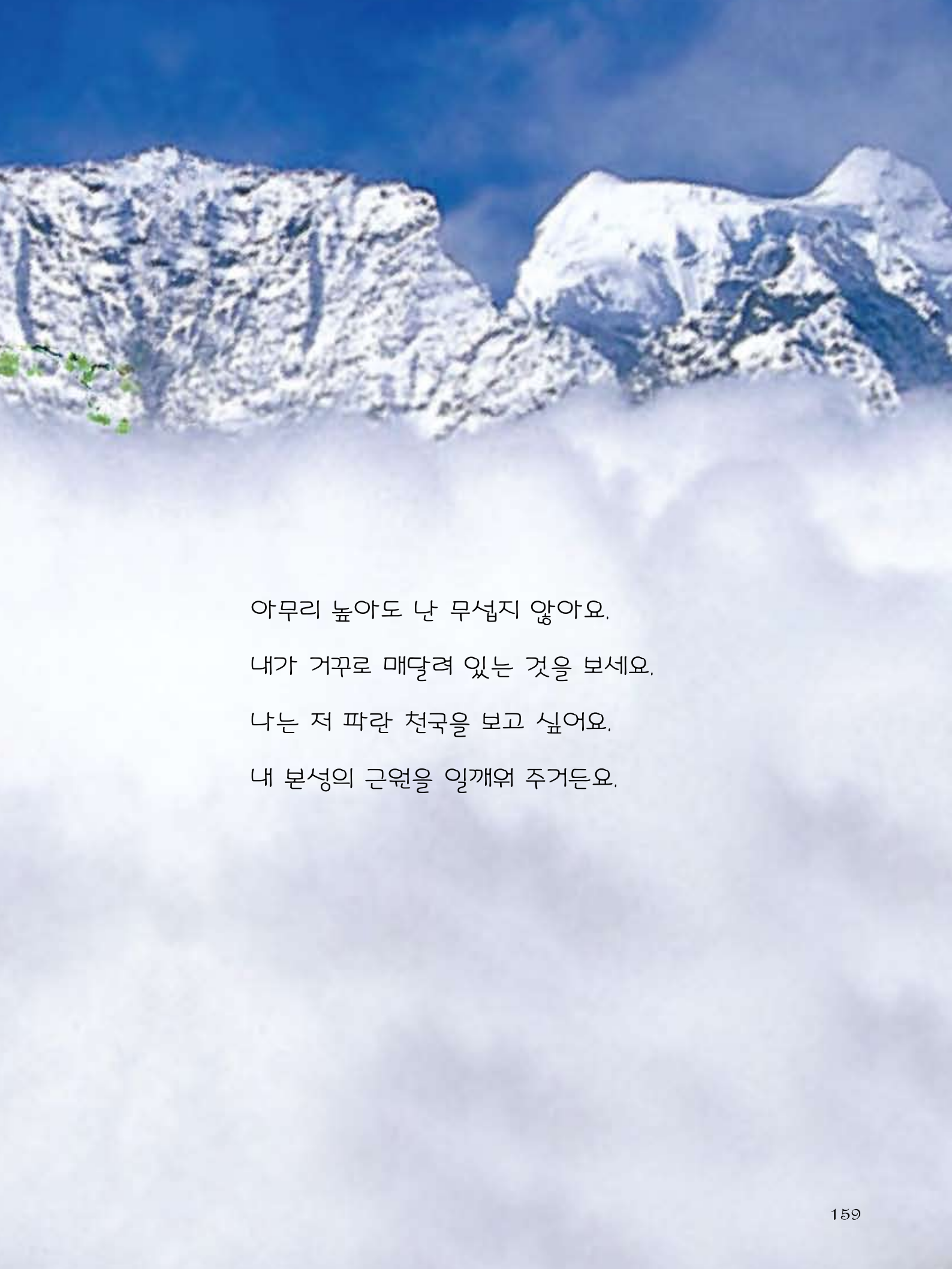
나는 바람이 기털을 어루만져 주는 게 좋아요.

나무 오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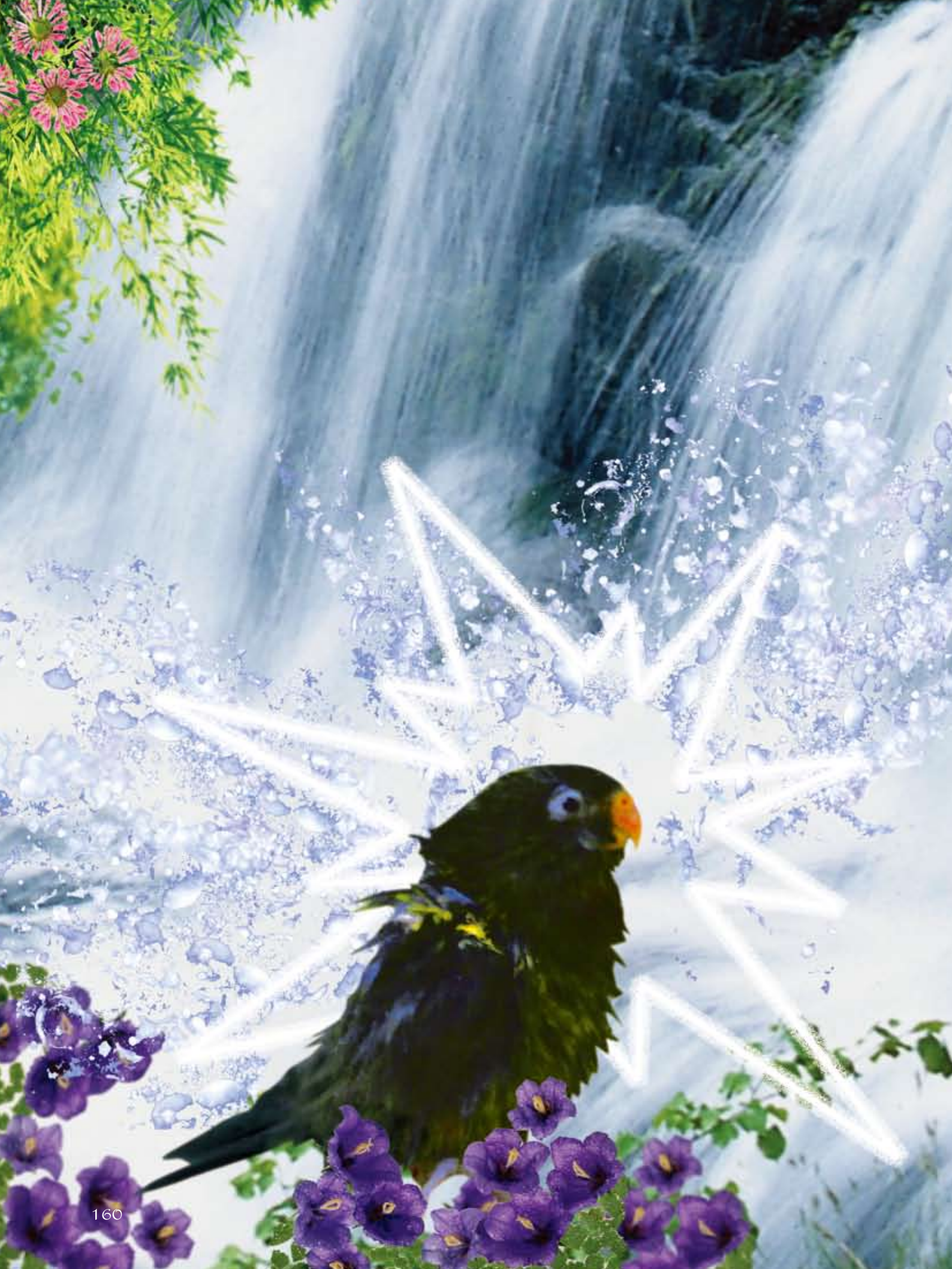
햇빛 아래서 노래 부르기도 열심히 하지요.








아무리 높아도 난 무섭지 않아요.
내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세요.
나는 저 파란 천국을 보고 싶어요.
내 본성의 근원을 일깨워 주거든요.





난 물이 좋아요, 난 샤워를 좋아해요,
틈만 나면 몸을 담그지요,
“청결은 신의 품성.”
나는 늘 그분을 기억하고 싶어요,

A white cockatoo is perched on a wooden branch, facing left. The bird has a large, dark, hooked beak and a small black eye. Its feathers are mostly white, with some yellowish-tan feathers visible on its tail. The background is a soft, out-of-focus green, suggesting a natural habitat. The word "Mirabeau" is written in a stylized, cursive font across the middle of the image, with a yellow outline and a dark shadow.

Mirabeau

내가 '성인(成人)'이 된 후 키운 첫 번째 새. 어렸을 때 검은 새를 한 마리 키웠지만 난 그 새를 풀어주었습니다. 야생에서 잡혀 온 데다 길들여진 적이 없는 새라서 새장에 가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의 이름은 원래 Mirabele였습니다. 전에 키우던 사람이 암컷이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불렀는데, 나중에 DNA 검사를 해보니 수컷이었습니다. 그래서 Mirabeau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지요.

아무튼,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Mirabeau는 여성처럼 사랑스럽고 개와 같이 충성스러우니까요. 나중에 아무리 많은 새들이 들어왔어도 그는 항상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애정을 보여 줍니다. 심지어 나날이 커지기만 하지요!

그는 언제든지, 또는 내가 아무리 늦게 와도 항상 문으로 달려와 사랑스럽게 안아 달라고 합니다.

내가 Mirabeau를 어쩌다 알게 된 것은 그가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그는 내가 '정식'으로 선택한 최초의 새입니다. 그가 나를 선택했다고도 할 수 있지요.

내가 들어가자 그는 나한테 인사하더니 곧바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런 후 잠든 것처럼 조용히 테이블 위에 누웠지요. 나는 우리 인연이 깊다고 느꼈지만, 책임감에 묶일 것인지 어떻게 확실히 마음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물었어요. “집에 갈 준비가 됐니?” 그러자 놀랍게도, 사람들과 새들, 개들, 온갖 종류의 애완동물들이 떠드는 와중에 잠자던 그 아기 새가 벌떡 일어나 군중들 사이로 곧장 내게로 걸어와 내 손에 올라서더니 머리를 내 가슴에 기대는 채 애정이 가득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며 모든 이들 앞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를 집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후로 우리는 지금껏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끼리 ‘말싸움’을 하긴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가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씹어서 내가 보고 있던 TV 프로그램을 중단시킨다거나 하는 정도지요. (어쨌든 TV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요!) 또는 내 가구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모든 것을 버리는 게 낫지요!) 내 셔츠 단추를 먹어 버리기도 했고요. (요가 수행자는 옷이 필요 없어요.) 나는 꼭 그를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안 그랬다가는 집에 있는 건 뭐든 그의 ‘파괴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는 장난감은 별로 안 씹어요. 씹지 말라는 걸 씹길 좋아하지요!

어느 날 우리가 바빠서 정신없을 때 그는 현관 문틀의 천장에 가서 차양 케이블을 모두 씹어 버리고선, 물어뜯겨 여기저기 마구 흩어진 선들 사이에 앉아 내가 자기를 데리고 내려가길 기다렸습니다. (물론 혼나는 것도요!)

그가 온갖 말썽을 피우며 별나게 굴어도 나는 항상 그에게 잘 자라고 키스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재산과 바꿀 만한 것이니까요.





내가 어느 새를 가장 좋아하는지 맞춰 볼래요?

가운데요. 그리고 나머지도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이 문을 부숴 버리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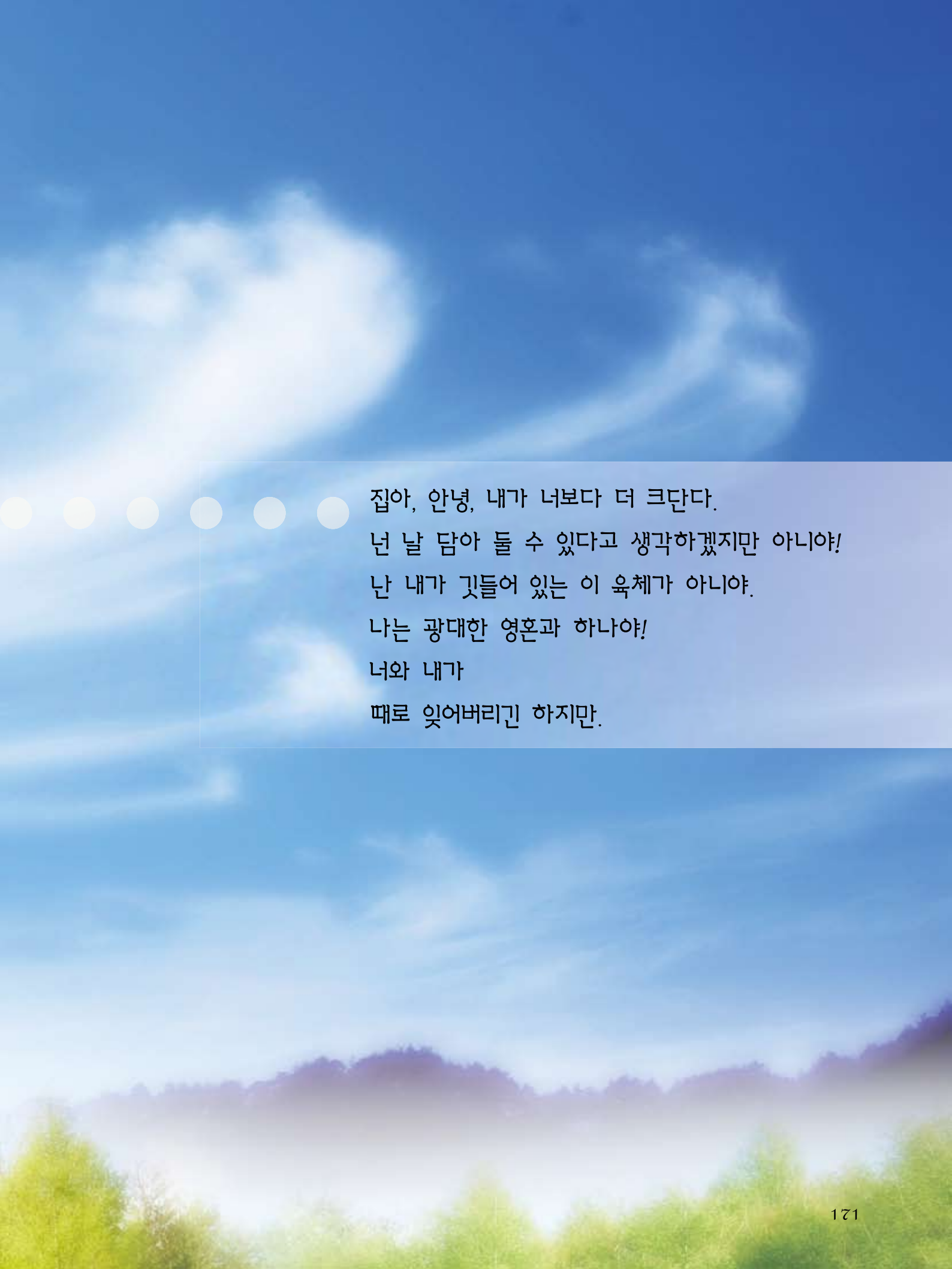
그녀는 집에 없는 데다 늦게 와요.

이게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환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친구들 사이에 있는 건 좋아요.
형형색색에 크기도 제각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잘 지냅니다!





집아, 안녕, 내가 너보다 더 크단다.
넌 날 담아 둘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야!
난 내가 깃들여 있는 이 육체가 아니야.
나는 광대한 영혼과 하나야!
너와 내가
때로 잊어버리긴 하지만.



네가 날 좋아한다는 걸 알아, Mirabeau.

하지만 내가 너에 비해 너무 큰 것 같지 않니? ● ● ● ● ●

● ● ● ● 오, 그건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어.

이 세상 모든 것은 상대적이야!





우주의 비밀을
누구나 이해하는 건 아니야.
내 생각엔!





나는 꿈꾸는 개예요.

아니면 꿈속에서 개가 되었든가요!

하지만 나는 이 환상에 신경 쓰지 않아요.


천국에 있는 거마냥 달콤하니까!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미지’에 대해 **묵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성스러운 우리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좋아요.



이 여인을 사랑하는 건

물론이고요.





Muni

‘바바리아의 여왕’ 골든코뉴어앵무 한 쌍 중 더 다정다감한 그는 사실 수컷입니다.

무척이나 사랑스럽지요. 그를 데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위아래로, 좌우로 돌리면 아주 좋아합니다. 배를 살살 긁어 주는 것도 좋아하고요.


무얼 하든 그는 항상 찬성합니다. “맞아, 맞아, 맞아!” 하고요.

그는 내가 가까이 가면 자기 ‘콘도’의 문 쪽으로 와서 꺼내 주길 기다립니다. 이 둘은 서로를 매우 사랑합니다. 항상 애정을 표시하고 서로의 깃털을 다듬어 주고 하루 종일 붙어 지내지요. 당연해요. 둘이 오누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쌍둥이처럼 보입니다. 그 둘을 구분할 방법은 Nova(다른 새)의 어깨 뒤쪽에 녹색 깃털이 좀더 많다는 정도예요.

그는 대단히 다정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이라도 그와 놀고 싶을 겁니다!



A scenic view of a lake with a castle in the background, surrounded by trees. The castle is a large, white, multi-story building with a prominent tower and a pointed roof. The lake is calm, reflecting the surrounding greenery and the sky. The trees are lush and green, with some branches hanging over the water. The sky is blue with some light clouds.

나는 결코 이곳의 여왕이 아니에요.
그 호칭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100% 사나이임을 확실히 보여 줄 수 있어요.
단지 내가 너무 어려서 못 보여 줄 뿐이지요!





우리는 쌍둥이처럼 보이지만 매우 달라요.
내 뒤에 있는 애가 진짜 여왕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정말 사랑스럽고, 고상한 척하지 않아요!
진정한 존귀함이란 위대한 영혼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왔고 곧 그곳으로 돌아갈 거예요.
별과 태양, 달을 너머로.





예! 밤낮으로 여기에 누워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이 날 꼭 껴안고 있기만 하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고요?
다들 알다시피 바로 당신의 사랑이죠!

예!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위아래로 돌려 주세요.
당신이 여기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하든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천국이 더 많이 보여요.
비할 바 없는 당신의 사랑도 느껴지고요.





Nova

Nova, 그저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구나. 너도 그게 진짜란 걸 알지.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름다운 나의 여왕님.
순수한 마음씨를 가진 천상의 존재.
이 세상이 너에게 맞지 않는데도
사랑을 보여 주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온 너.
인류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거야.
신께서 그들에게 최고를 보내 주시니.
너는 너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선사했지.
하지만 네가 가 버리면 슬픔만 남을 거야!

Nova, 내가 살아 있는 한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영원히, 더욱더 영원토록.

이 환상의 꿈 너머에서
우리는 영원한 친구로 남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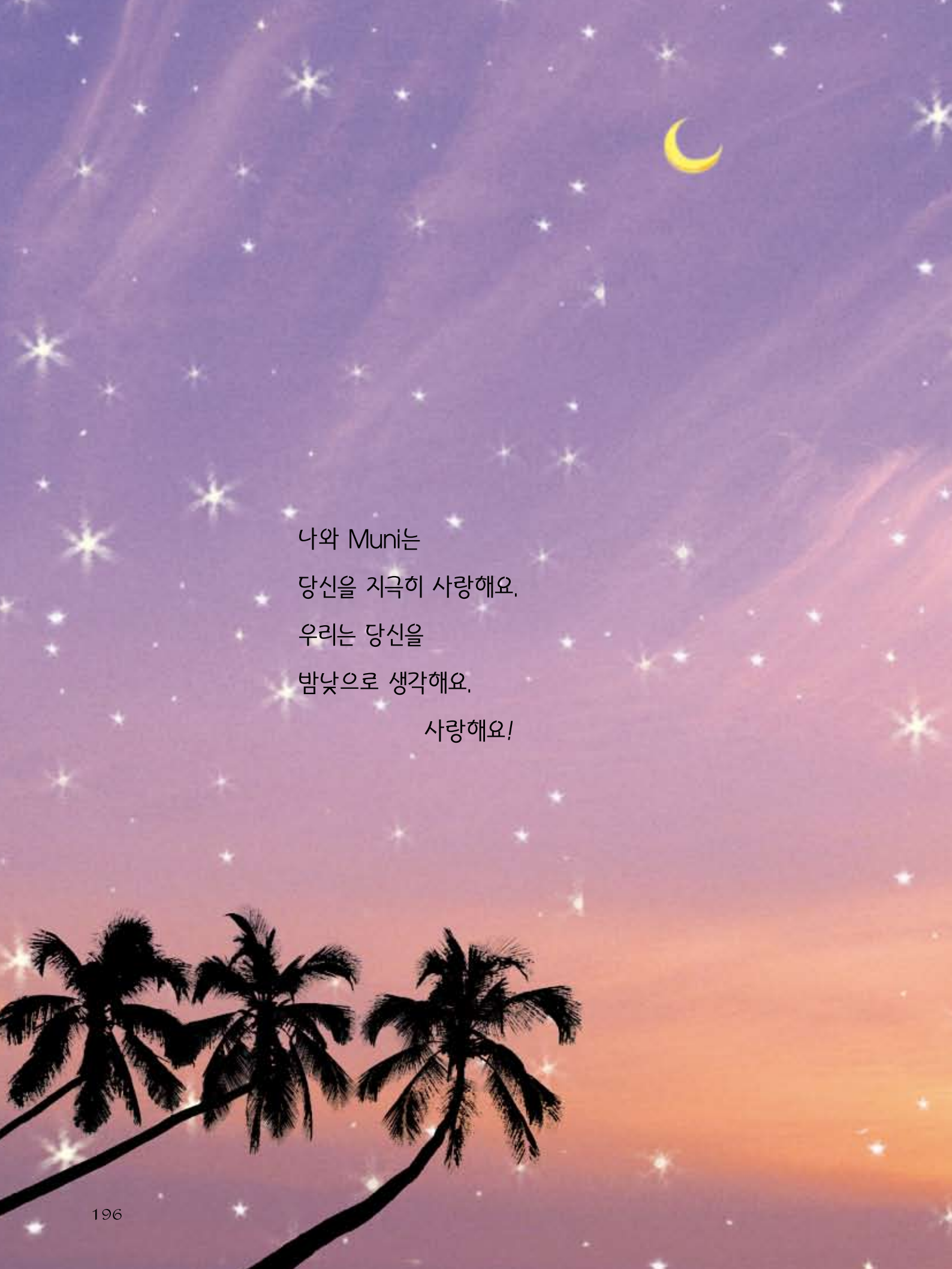
난 손톱만큼도 질투하지 않아요.
당신은 Muni랑 똑같이 나를 사랑해 주지요.
하지만 그 애는 남자애고 난 여자애예요.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말해 줄래요?
(농담이에요!)



세상을 ‘거꾸로’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 자세를 아주 좋아해요.
더 높이, 더 뚜렷해 보이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얼굴을 전부 다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천국의 은총도 훨씬 더 많이 느껴지고요,
우리가 함께할 때면 세상은 아름다워요,
마음속 깊이 창조주께 감사드려요.

A romantic night sky with a crescent moon, stars, and palm tree silhouettes. The sky transitions from a deep purple at the top to a warm orange at the bottom.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image.

나와 Muni는
당신을 지극히 사랑해요.
우리는 당신을
밤낮으로 생각해요.
사랑해요!





Ping Ping

그는 Mei Mei와 함께 작은 새장에 갇혀 야생 상태로 방치돼 살았습니다. 물론 순전히 번식을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돈벌이가 된다면 서슴없이 그들을 떼어 놓을 거라서 난 그들 둘을 데려왔습니다.

그의 암호는 '예쁜 새'입니다. 그가 자신의 화려함을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이지요.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나는 이 암호를 사용해 그를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그가 내 손에 오면 길들여지지요.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많은 인내심과 시간, 사랑이 필요합니다. Ping Ping과 Mei Mei는 야생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잠시라도 그들과의 '상호 작용'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괜찮아요. 우리 집에서는 누구나 친하게 지낼 상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그저 서로의 존재를 즐기면서 필요한 부분을 보살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짝이 있는 셈이고, 우리는 가족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도 그렇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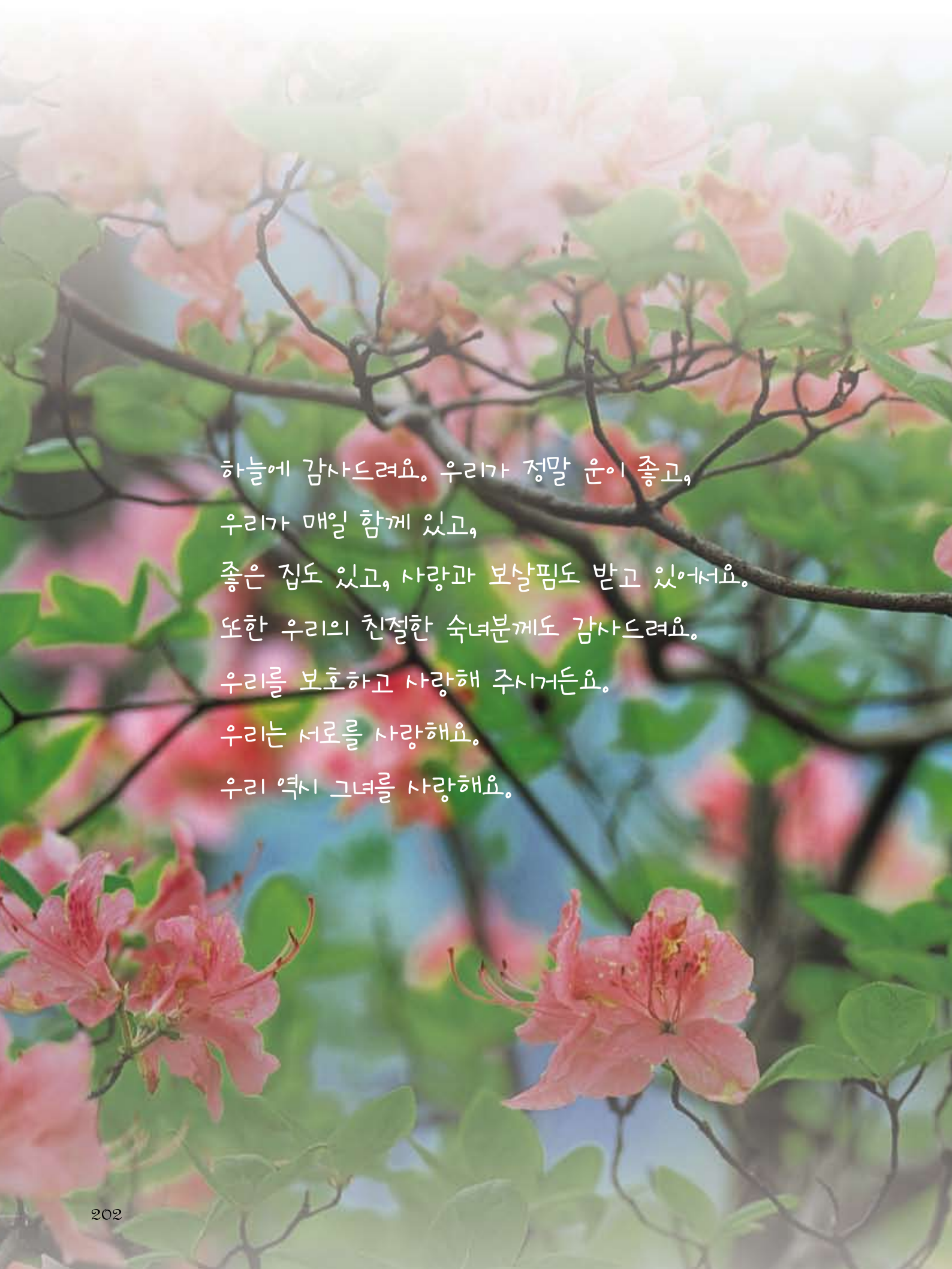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모두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린 정말 그래요.

맹세코 말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가장 예뻐요.

이 세상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려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죠.

나는 나의 고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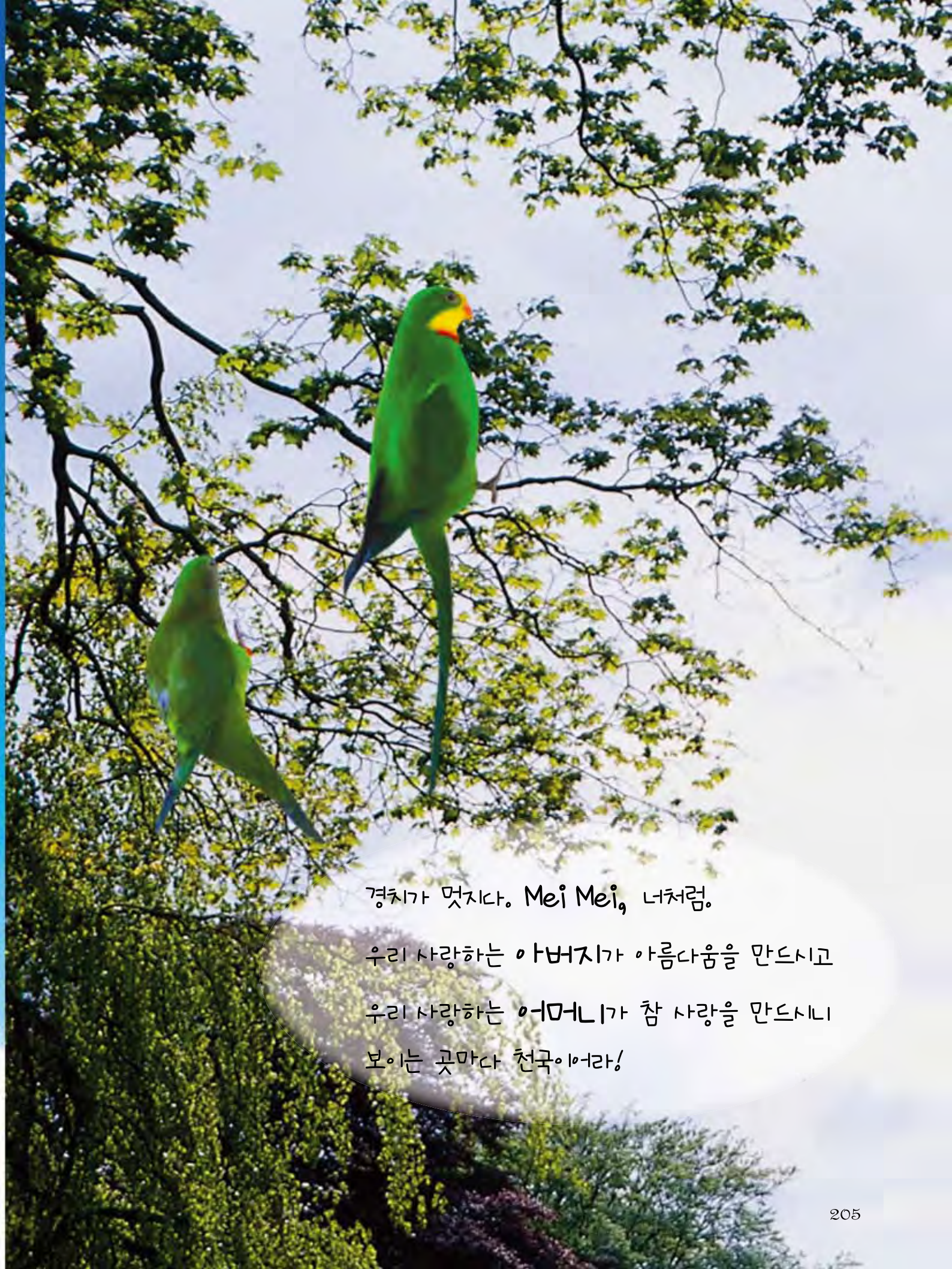


하늘에 감사드려요. 우리가 정말 운이 좋고,
우리가 매일 함께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사랑과 보살핌도 받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친절한 숙녀분께도 감사드려요.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해 주시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요.
우리 역시 그녀를 사랑해요.





나는 나무들 사이로 높이 날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내 마음이 하늘처럼 드넓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 무엇도 내 정신을 담지는 못해요!
내 안에는 천국의 힘이 있으니깐요!



경치가 멋지다. Mei Mei, 너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름다움을 만드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가 참 사랑을 만드시니

보이는 곳마다 천국이어라!



Prajna

그녀가 내게 왔을 때는 '아기'였습니다. 조류 수의사가 그녀를 집에 데려가라고 추천해 줘서 그렇게 했지요.

나는 Prajna가 스스로 먹이를 먹을 때까지 숟가락으로 밥을 먹였습니다. 그녀는 집에 온 이후로 다른 사람이 머리를 긁어 주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까지도요. (새들 방의 온도가 적당한지, 밤에 지내기 괜찮을 정도로 시원한지 따뜻한지 확인하기 위해) 내가 들어가면 아무리 늦은 시각이어도 그녀는 항상 가까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고개를 숙입니다.

나는 새들 방에 들어갈 때면 항상 먼저 부드럽게 노래를 부르고 작은 손전등으로 내 얼굴을 비춰서 새들이 놀라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그녀도 나와 함께 노래를 부르곤 하지요.

또는 “야호.”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또 그녀는 내가 하는 식으로 혀를 차기도 합니다. 그리고선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다가오지요.

그녀는 대단히 사랑스러우며, Mirabeau를 조용히 시킵니다. Mirabeau는 전에 혼자 있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곤 했답니다. 이제는 그녀가 친구가 돼 줘서 더 행복해합니다. 그들은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그녀는 내 목소리와 똑같이 말합니다. 때로는 내가 근처에 있는 걸로 여기게끔 시자들을 속이기도 하지요! 내가 조수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그들이 대답하지 않으면 그녀가 “예, 스승님.” 하고 말합니다. 그들 대신에요!

그녀는 개들의 이름을 각각 정확히 부릅니다. 이를테면 “Benny, 조용히 해.”, “Hermit, 안 돼.” 하는 식이지요. 개들이 너무 시끄러울 때면요! 물론 내가 근처에 (땅콩을 들고!) 있는 게 느껴지면 “사랑해요.”라고 말한답니다.



나는 다 큰 숙녀예요. 신의 사랑 속에 자라지요.

누가 손가락으로 떠먹이는 게 필요하대요?

(아직도 내가 아기인 줄 아나 보!)

엄마들은 정말! 걱정하는 게 똑같아요!

꽃들과 나

누가 더 예쁜가요?

경이로운 느낌을

금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신은 아주 지혜로우신 게 틀림없어요.

당신과 나 같은 미인들을 만드신 걸 보면요.





그리고 신은 이 여성도 만드셨어요.
새들을 사랑하고 보살핌 수 있도록요.
나는 그녀가 어떤 행성에서 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녀가 없으면 내가 뭘 하겠어요!



내 주변과 사방을 둘러보니
어딜 봐도 아름다움과 사랑뿐.

이 모든 보살핌과 사랑에
하늘과 저 위의 신께 감사드려요.





환상과 분란으로 가득 찬
이 덧없는 꿈의 세계에서
신의 사랑이 나를 굶어살피세요.....



나는 삶을 사랑해요.
당신 때문이지요!
♥



여름이나 겨울이나 모두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항상 따뜻하니까요.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 출신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난 '아버지의 집'에서 왔어요.)

-스승님 말씀!-



난 그녀 말을 믿어요!



Prima


그녀는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그녀는 바로..... Prima예요.
그녀는 꼭대기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그녀를 살 수 없어요.
유혹할 수도 없지요.
여러분이 짙은 색깔이거나
적어도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
그것도 인간 남자가 아니라면요.

그녀는 어떤 이유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그래요. 나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요. 괜찮아요. 우리는 좋은 친구입니다. Prima는 내 어깨에 자기 '혼자'만 얹고 다니도록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동행하려 하면 내 귀를 살짝 깨물 거예요!

그녀는 그 작은 체구에 비해 아주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중 유리 창문을 꼭 닫아도, 문을 닫아도 들릴 정도예요. 방음 유리인데도요.....

그녀는 땅콩 하나, 사과 한 조각을 얻거나 무임 승차를 하고 싶을 때면 친절해집니다. 내게 다가와 "Prima는 나가고 싶어요." 하고 말하는데, 자신이 진심임을 내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큰 소리로 퍽퍽거리거나 자물쇠를 물어뜯고 새장을 발로 차는 등등.)

하지만 나는 그녀를 너무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그녀를 꼭 껴안고 이 애길 해주고 싶어요. 신께서 그녀의 영혼을 축복하시길!



나는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특히 활 트인 야외에 있을 때는요.
사랑하는 신은 내가 자유롭게
예쁜 꽃과 그늘진 나무 사이에서 지내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 여주인의 말씀~)





(Azure에게) 너한테 화살이 났혀 두는데
 그는 내 거야!
 그녀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는 같은 천국을 함께 누릴 거야.
 허락해 줄게. 너는 내 친구니까!



좋아, Amigo!

내 너를 용서할 것을 선포하노라.

“너희가 너희에게 죄진 이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하느님도 너희를 용서하리라.....”

다시는 그렇게 가까이 있지 마..... 그 파란 애랑!



Rainbow

Rainbow는 내 모든 새들 중에서 가장 '영적 교감력'이 뛰어납니다. 그는 경이롭고 감사한 많은 것들을 내게 전해 줍니다. 그는 새들 우리 간의 상황과 다른 유용한 게시물에 대해 알려 주는 '중간 다리'와 같습니다.

그는 대체로 매우 점잖아서 어떤 도발에도 반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이 강하고 참을성이 많긴 해도 그가 기분 상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Laguna를 대단히 애지중지하며, 그 둘은 사이좋은 친구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깃털을 다정하게 손질해 주

고 키스하고 음식을 게워 내 서로 나눠 먹습니다(새들의 확실한 애정 표시).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그는 종종 (번호) 자물쇠를 열고 자기 새장에서 나와 Laguna를 찾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새장이 아무리 커도 그녀와 한쪽 구석에 딱 붙어 있습니다.

나는 그를 '갈고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가 새장의 천장 철망에 발톱을 걸고선 꼭대기에 매달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잠잘 때도 그러고 잡니다. 또 Laguna와 같이 있을 때면 기어코 그녀도 똑같이 하게끔 설득시킵니다.

Laguna가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거의 드뭅니다. Sunny도 Rainbow와 함께 있으면 Rainbow처럼 거꾸로 공중에 매달립니다.

Rainbow는 애정이 매우 깊은 새이지만, Laguna와 관계된 일이라면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 세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나는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어디든지요.
할 수만 있다면 천국도 올라갈 거예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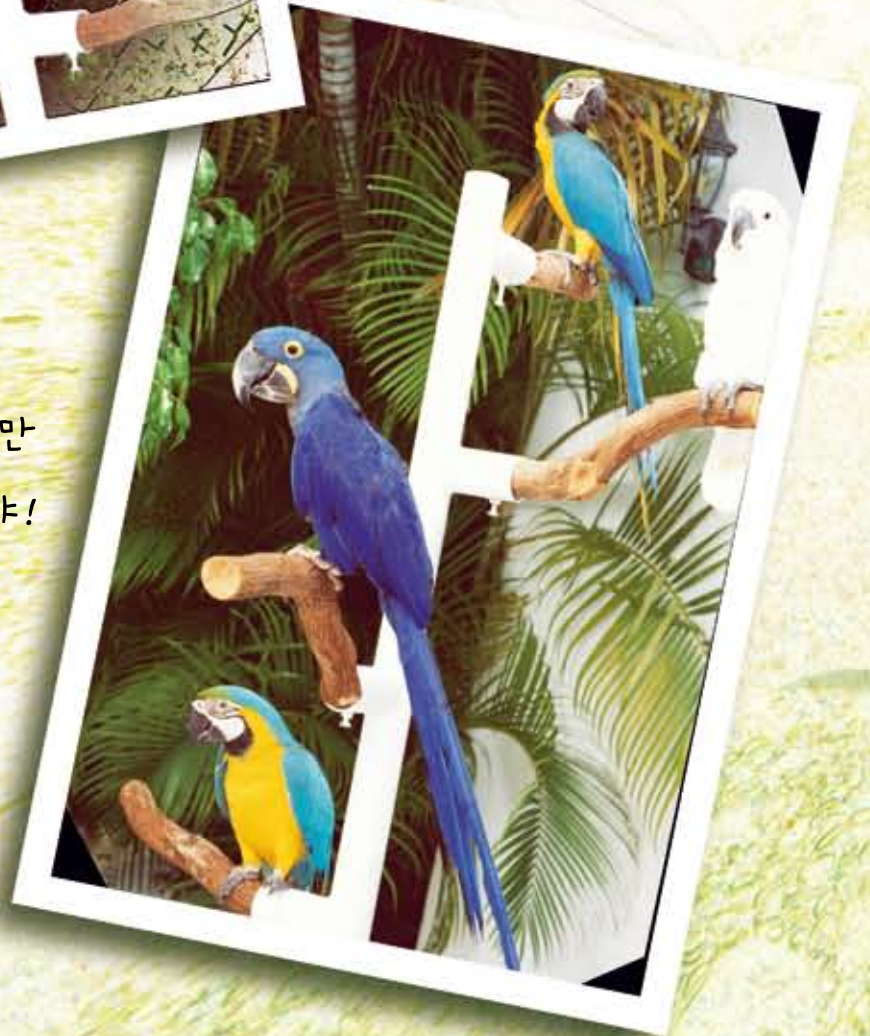
내가 왔던 곳에서, 우리는 매달려 있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랑에 매달리지요.
신과 덕성, 아름다움에 매달리고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고귀함에 매달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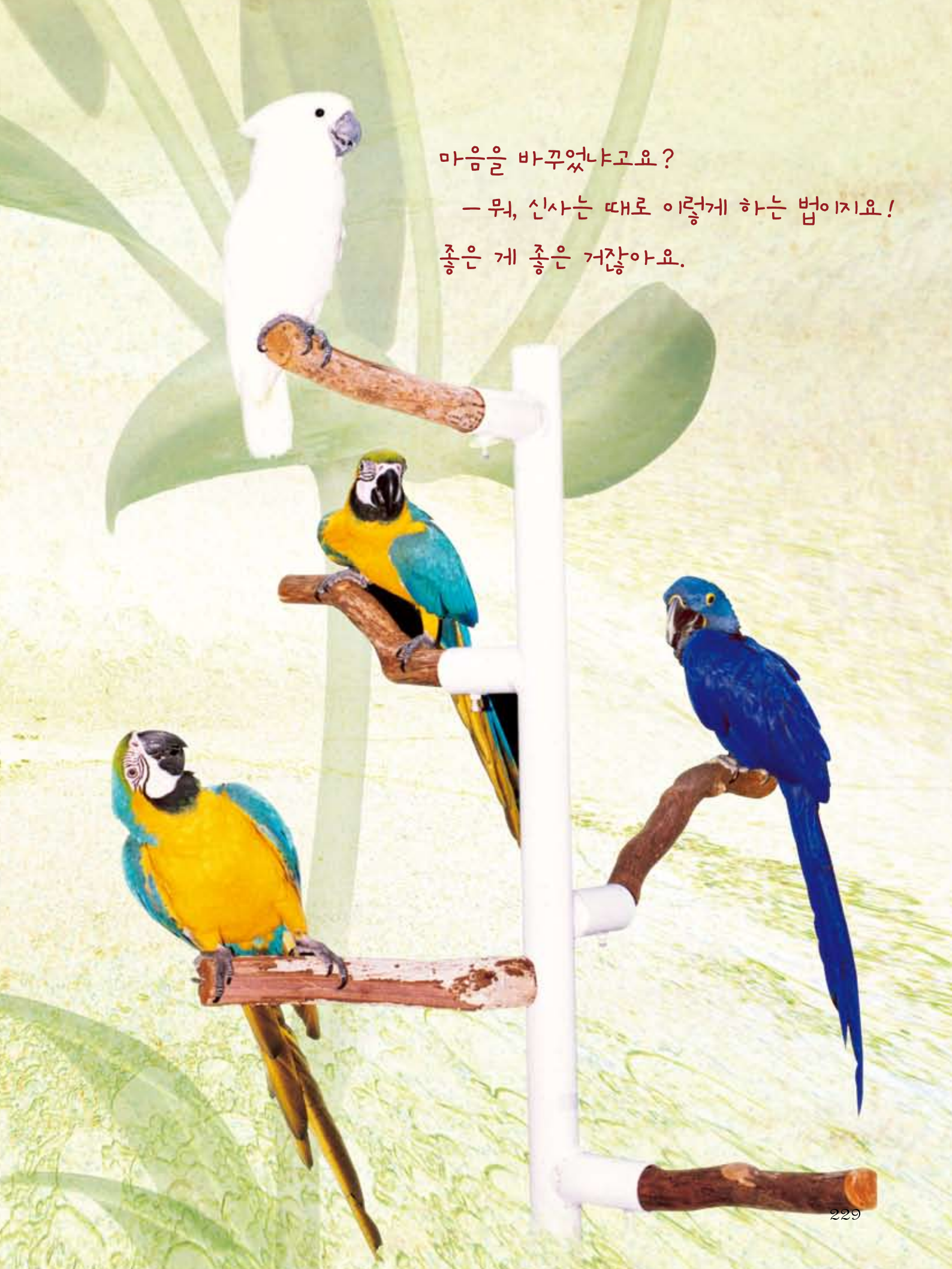




불가능을 요구하지 마.
선착순으로 앉는 것 아니겠어?!
내가 널 정말로 사랑하긴 하지만
내 마음이 내킬 때까지는 믿어 줘!

Laguna는 진작에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꼭대기에 있는 나, Rainbow는 아니야!





마음을 바꾸었냐고요?

— 뭐, 신사는 때로 이렇게 하는 법이지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이 사진은 확실히 나다워 보이네요.
우리 새들은 고품질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존중받는 걸 좋아하고
사랑을 좋아해요.
이런 것들이 없다면 삶이 어떨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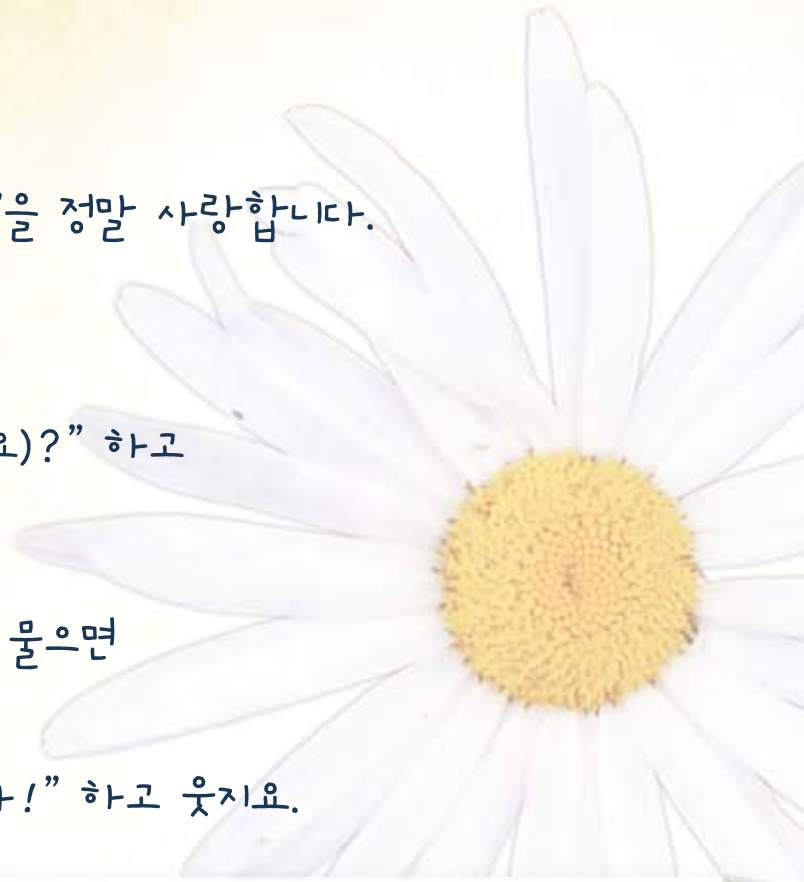
난 이 사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찍어 달라고 했지요.





또 우리는 소중한 '새 친구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 'Sunny'는 정말 웃겨요.
엄마가 행복하냐고 물으면
중국어로 "니 하오(안녕하세요)?" 하고
대답해요.

다른 사람이 "안녕?" 하고 물으면
"하 하!" 하고 말하고요!
그러면 우리 모두 "꽈 꽈 꽈!" 하고 웃지요.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사랑하는 Rainbow!”



나와 함께 매달려 보.....
지루하면!

이것은 최고의 사랑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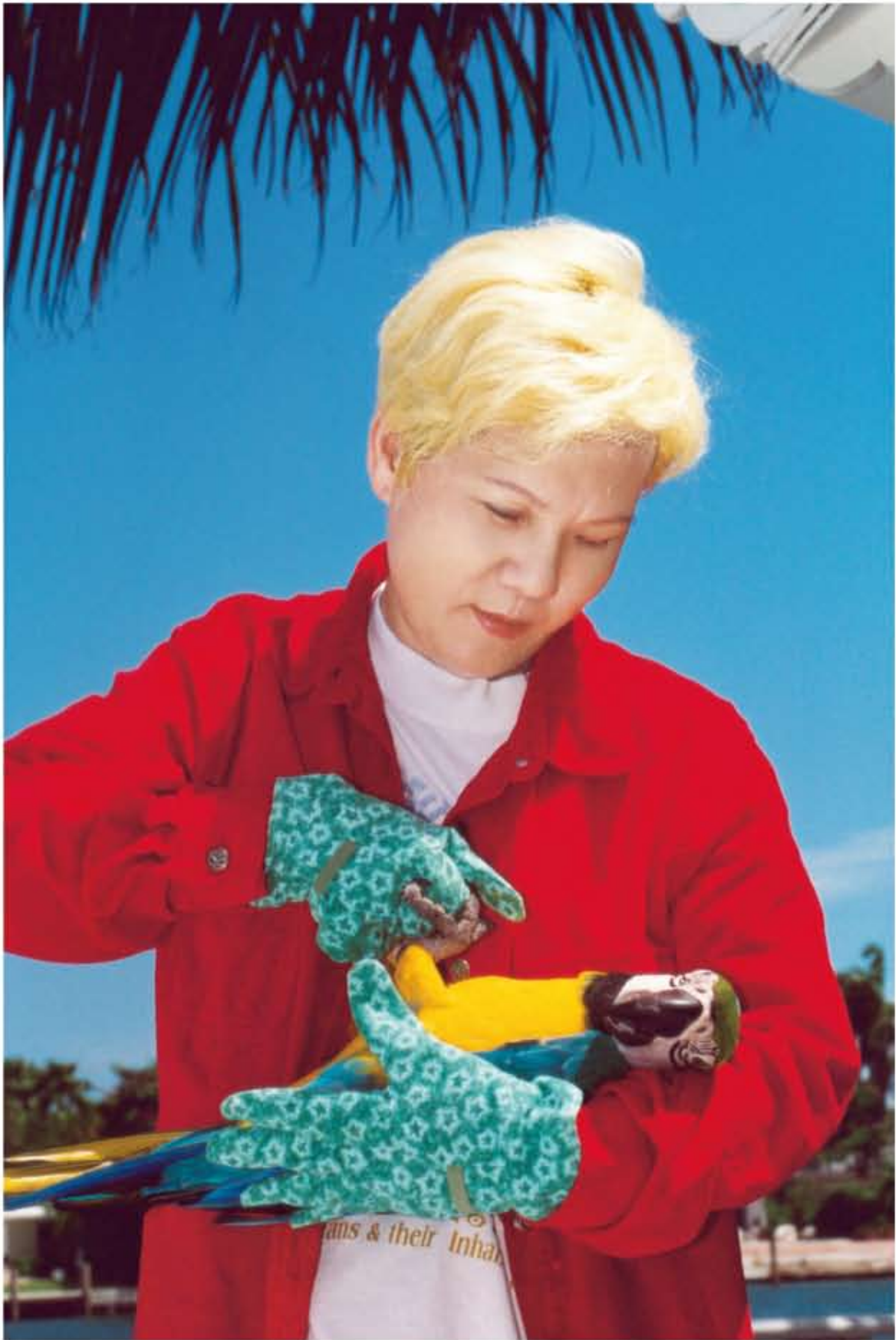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 해주요.

나도 그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 할 거예요.

하 하 히히!

그녀 품에 안기면 아기가 된 것 같아요!







나는 신께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내 마음은 크나큰 감사로 가득하죠!

이렇게 커다란 기쁨과 만족이
천국에 있는 듯 날 행복하게 만들어요.
내게 그녀의 사랑을 주시고
훌륭한 명상을 주신 신께 감사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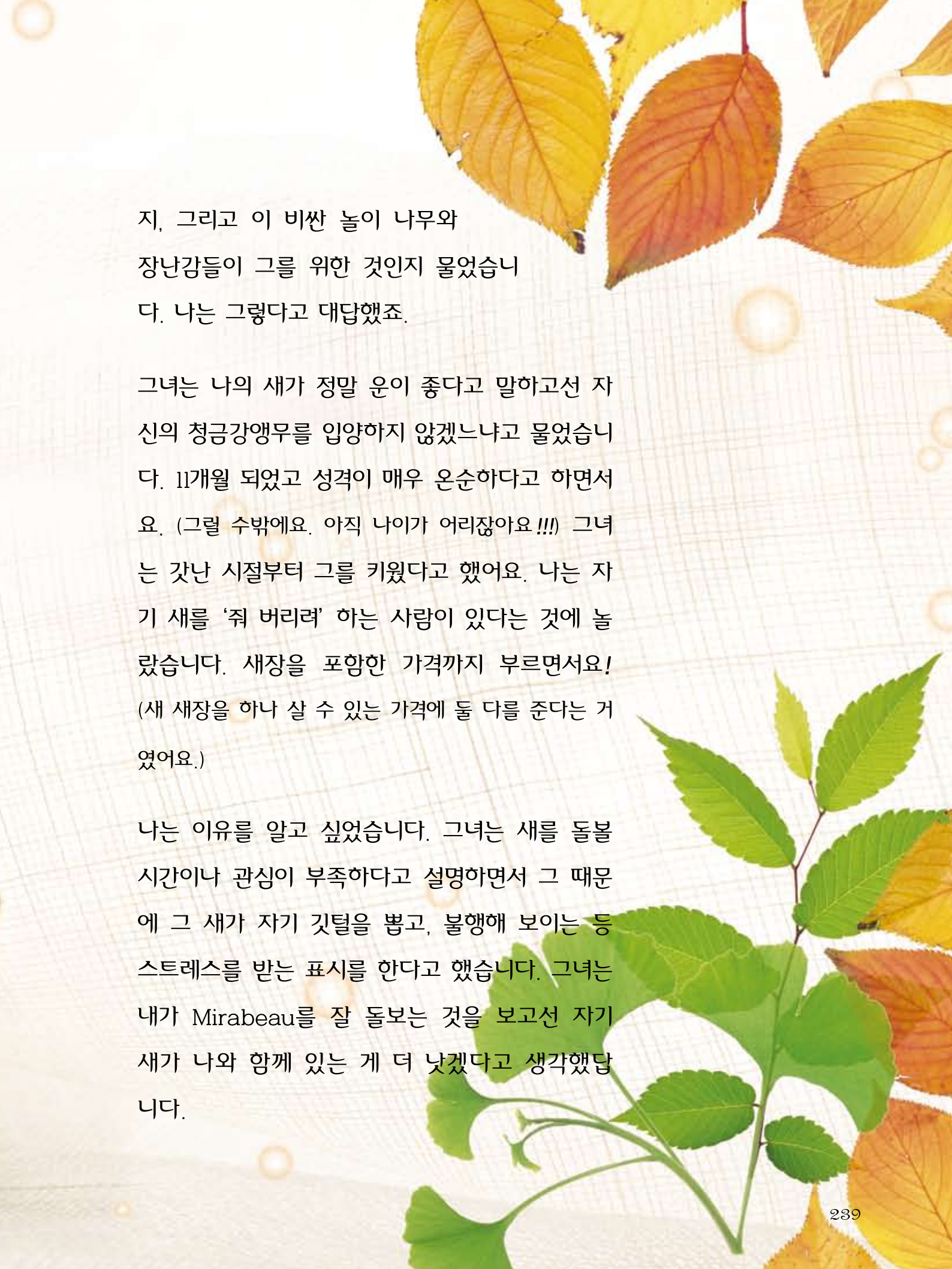




Sunny

어느 화창한 오후, 나는 어깨에 Mirabeau를 얹고 한 애완동물 가게에 들어가 그에게 줄 '놀이 나무'와 몇 가지 장난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가게 여점원은 그 가게에서 가장 좋은 물품을 보여 줬습니다. 목재로 된 크고 단단한 '나무'였는데, 그네와 고리, 그리고 새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많은 가지들이 달려 있었어요. 나는 거기서 필요했던 물건을 모두 고른 후 계산하러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물건을 권했던 점원이 어딜 가나 새를 데리고 가는



지, 그리고 이 비싼 놀이 나무와
장난감들이 그를 위한 것인지 물었습니
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녀는 나의 새가 정말 운이 좋다고 말하고선 자
신의 청금강앵무를 입양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
다. 11개월 되었고 성격이 매우 온순하다고 하면서
요. (그럴 수밖에요.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녀
는 갓난 시절부터 그를 키웠다고 했어요. 나는 자
기 새를 '줘 버리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
랐습니다. 새장을 포함한 가격까지 부르면서요!
(새 새장을 하나 살 수 있는 가격에 둘 다를 준다는 거
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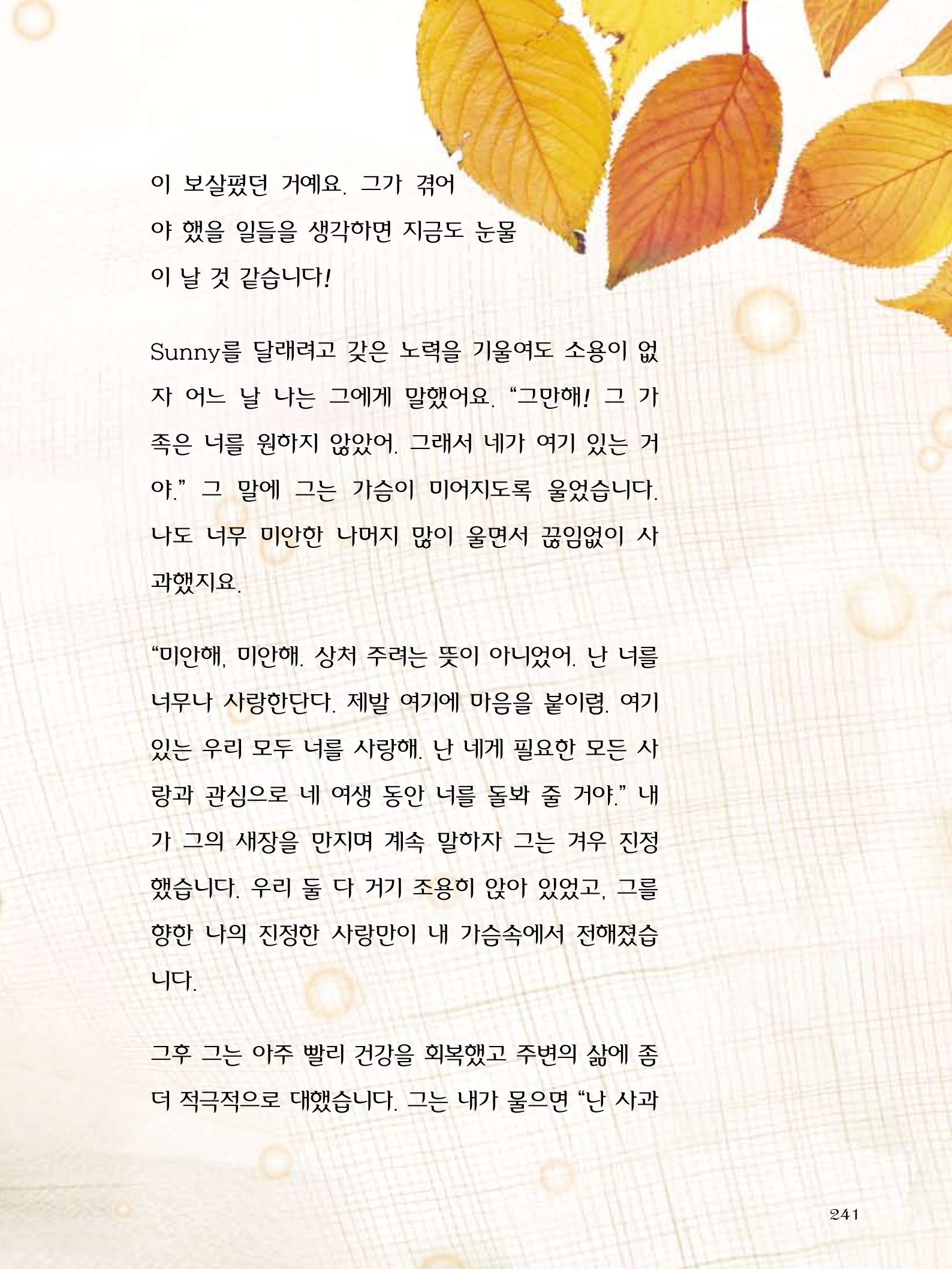
나는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새를 돌볼
시간이나 관심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면서 그 때문
에 그 새가 자기 깃털을 뽑고, 불행해 보이는 등
스트레스를 받는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Mirabeau를 잘 돌보는 것을 보고선 자기
새가 나와 함께 있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답
니다.

그래서 나는 차를 몰고 그녀 집에 가서 돈을 내고 거래 증명 서류를 갖고 그 새를 데려왔습니다. 나는 Sunny가 가여웠어요. 아무도 그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그의 감정도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이어서 2주간 그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많이 울었습니다. 별로 먹으려 하지도 않았지요. 그때 나는 이미 Sunny(기운차게 생활하고, 불행했던 과거와 인연을 끊도록 새로 지어준 이름)에게 큰 새장을 사 준 상태였지만 어쩌면 원래 있었던 작은 새장이 그에게 더 친숙하고 편안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자를 보내 그 오래되고 좁고 녹슨 새장을 가져오게 했어요. Sunny의 기분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며 “아빠, 아빠.” 하고 소리쳤어요. 이전 남자 ‘주인’을 부르는 게 분명했지요. 그 사람이 부인보다 Sunny를 더 많





이 보살폈던 거예요. 그가 겪어야 했을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Sunny를 달래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여도 소용이 없자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말했어요. “그만해! 그 가족은 너를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네가 여기 있는 거야.” 그 말에 그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울었습니다. 나도 너무 미안한 나머지 많이 울면서 끊임없이 사과했지요.

“미안해, 미안해. 상처 주려는 뜻이 아니었어. 난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제발 여기에 마음을 붙이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너를 사랑해. 난 네게 필요한 모든 사랑과 관심으로 네 여생 동안 너를 돌봐 줄 거야.” 내가 그의 새장을 만지며 계속 말하자 그는 겨우 진정했습니다. 우리 둘 다 거기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를 향한 나의 진정한 사랑만이 내 가슴속에서 전해졌습니다.

그후 그는 아주 빨리 건강을 회복했고 주변의 삶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내가 물으면 “난 사과



가 좋아요.”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망고
고를 더 좋아하고 그다음으로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새들은 여러분에게 자신들의 세계와 충성심,
감정적 요구, 감수성, 그리고 사랑에 대해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과 외면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부드러운 보살핌, 존중을 받을 만한 존재이며 여러분이 관심을 보이면 고마워합니다. 나는 내 새들 중 어느 누구도 집에 데려온 것을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 얼굴을 미소로 빛나게 하고 이 세상에서의 나의 일상생활을 환하게 밝혀 줍니다.

새들은 인간과 다른 창조물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나는 그저 그들이 우리 집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는 내 이름이 맘에 들어요.

Sunny, 바로 나예요.

나는 신의 빛 속에 살아요.

아주 햇빛 찬란한 느낌이지요.



착한 Rainbow와 나
우리는 아주 비슷해 보여요.
엄마만 우리를 구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장갑을 검사해 볼게요.
품질이 괜찮은지 좀 보겠어요.
난 정말 '부드러워서'
당신 '손가락'을 다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어제는 파랑더니
오늘은 빨강네요.
무슨 깃털이
그렇지요?





나를 쏘려고요? 어서 해줘요. 그걸 좋아하거든요.
여름에 샤워하면 정말 기분 좋지요.

등이랑 날개 밑으로요.
정말 시원~하고 상쾌~해요.





저는 Sunny예요. Rainbow가 아니에요.
아까는 잠깐 그에게 빌려 줬던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 집에는 주인이란 게 없어요.
신께서 주시는 것이라 우리는 나눠 씹니다.
우리는 덧없는 것들을 쌓아 두지 않아요.



이 카펫을 검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엄마의 발에 맞게 부드러운지 살펴보고요.
엄마는 우리 모두를 잘 보살펴 주는데
뭐라도 보답해야 하지 않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착하고 예쁜 카메라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나는 행복하고 감사하며 만족하고 있단다.
나의 여주인께, 그리고 하늘의 은총에 감사해.
모두에게 내가 운 좋은 새이고
영원한 '사랑의 집'을 찾았다고 말해 주렴.



하늘이 끝이 아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끝이라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너는 별들 너머로 날아가야 해.
은하수와 저 먼 별자리 너머로!”

와!



당신 때문에 난 이 기구를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이 어디에 있든 따라갈래요.
 당신이 잠깐이라도 없다고 말씀하시니 분명 그럴 거예요.









Tutu & Mimi



Tutu와 Mimi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러운 나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왕관앵무이지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바로 내 손에 뛰어올랐고 내 양쪽 어깨에 각각 올라타고선 계속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자세로 내 집으로 ‘실려’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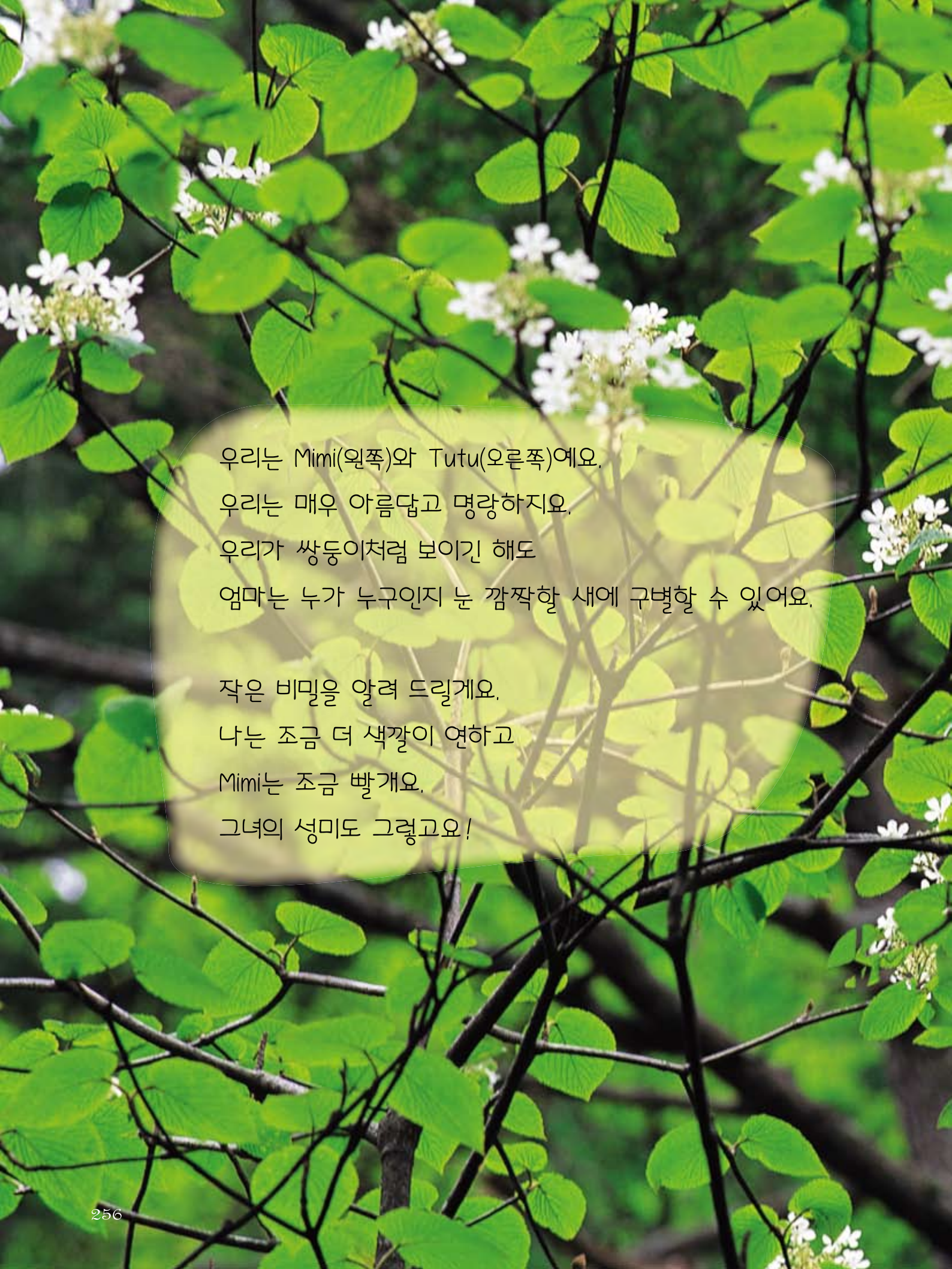
그들 둘과 Mirabeau는 나와 함께 이동 주택에 살면서 많은 곳을 여행하며 가족 휴가와 같은 생활 방식을 즐겼는데, 다들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들은 내 어깨에 앉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거나 소파의 등받이에 앉아 TV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 머리카락을 손질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각각 한쪽에 앉아 열심히 내 머리카락을 부리로 다듬어 주지요! 오, 나는 그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들의 ‘작고도 큰’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내 목소리가 들릴 때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주 큰 소리로 “ 짹짹 ” 거리며 나를 부르고, 내가 들어서면 마구 달려와 흥분된 모습으로 인사합니다. 그 작은 몸과 폴짝폴짝 뛰는 발놀림, 그리고 크고 높은 음조로 환영과 재회의 기쁨을 나타내는 모습에서 그들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난 너희를 몹시 사랑한다!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Mimi(왼쪽)와 Tutu(오른쪽)예요,
우리는 매우 아름답고 명랑하지요,
우리가 쌍둥이처럼 보이기 해도
엄마는 누가 누구인지 눈 깜짝할 새에 구별할 수 있어요.


작은 비밀을 알려 드릴게요,
나는 조금 더 색깔이 연하고
Mimi는 조금 빨개요,
그녀의 성미도 그렇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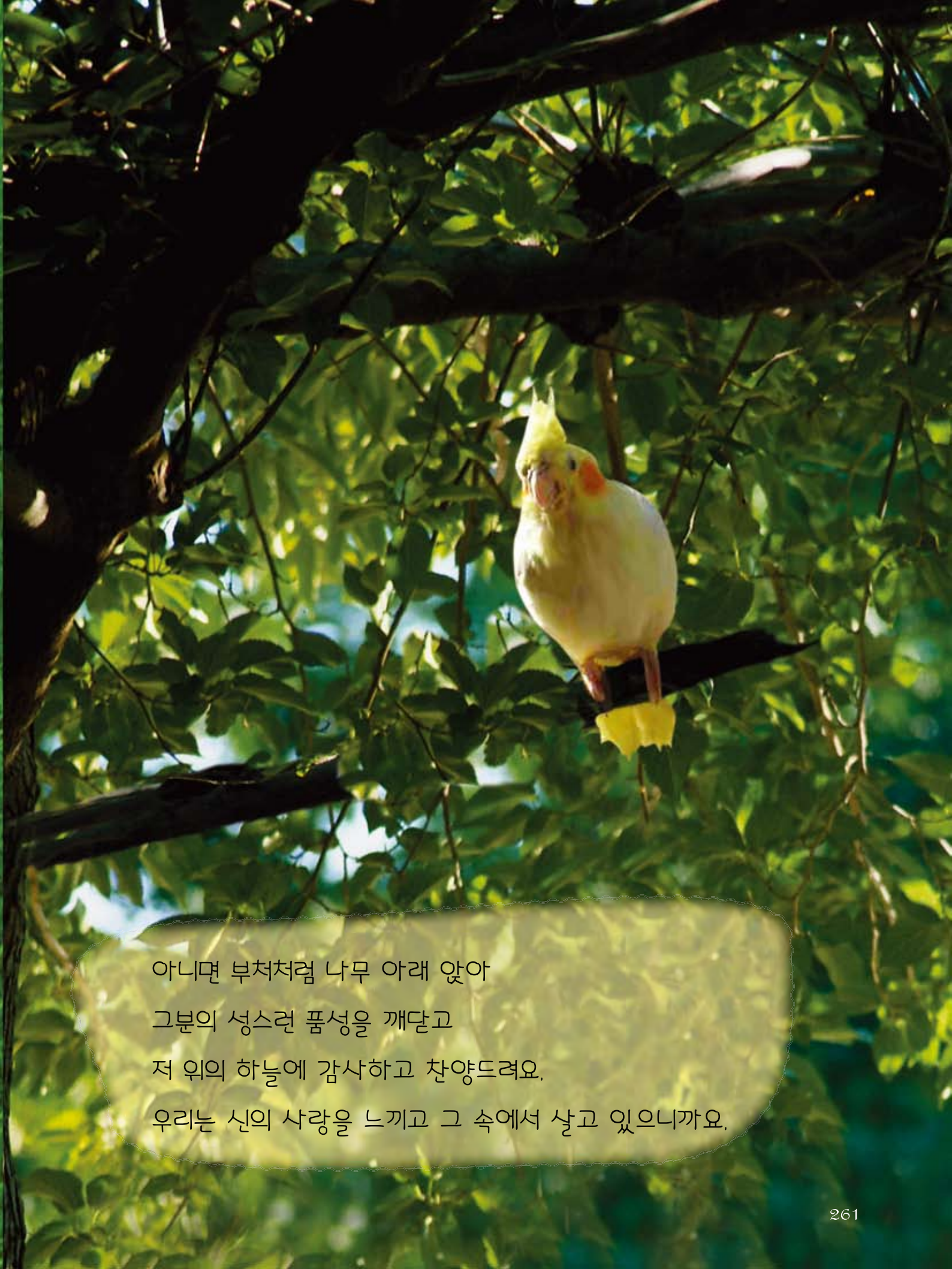
A vibrant outdoor scene featuring a wooden bench with a dark metal frame, positioned in a field of yellow flowers. The background is a clear blue sky with a faint rainbow. To the right, a portion of a colorful, stylized character is visible. The overall atmosphere is bright and cheerful.

우리는 대가족이지만
엄마는 여전히 Tu와 Mimi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엄마는 “사랑은 나누는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른 친구들과 항상 그렇게 해요.



A cockatiel with a white body and a yellow crest is perched on a green plant with several bright yellow flowers. The background is a dense field of green grass.

하지만 우리는 때로 혼자서
정원 주위를 탐험하러 가기도 해요.
잎사귀와 꽃들 하나하나에 배어 있는
신의 무한한 사랑을 찬탄하려고!

A photograph of a cockatiel perched on a dark tree branch. The bird is white with a yellow crest and a red cheek patch. The background is a dense canopy of green leaves, with sunlight filtering through, creating a dappled light effect. The text is overlaid on a semi-transparent, light-colored, cloud-like shape at the bottom of the image.

아니면 부처처럼 나무 아래 앉아
그분의 성스런 품성을 깨달고
저 위의 하늘에 감사하고 찬양드려요.
우리는 신의 사랑을 느끼고 그 속에서 살고 있으니깐요.




엄마가 바쁠 동안 우리가 머리카락을 손봐 드리자!

내 생각엔, 엄마는 멋지게 보여야 해.



나는 이쪽을 맡을 테니 너는 그쪽을 맡아.
엄마의 엉망인 깃털을 다듬어 드리자.

A large, thick tree trunk stands in the center of a lush green field. The field is filled with vibrant green grass, and the background is a dense forest of green trees. The scene is bright and sunny, with shadows cast across the grass.

보세요, 우리는 여기 정원에서
사랑과 장난감, 햇대를 나눠 써요.



당신이 곁에 있을 때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당신이 여기 없을 때면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여기에 있건 저 멀리 있건
밤낮으로 당신의 사랑이 느껴져요.





혼자서 가시나요?

그럼 너무 외롭잖아요!

Tutu가 같이 동행하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반려인[♥]



이분이 바로 우리 운 좋은 새들이 흠모하는
사랑하는 여성 만려인이예요.
그녀에 대한 애정은 말로 다할 수 없어
우리는 그저 '엄마'라고만 불러요.



우리 반려인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 중 하나와 함께 있군요.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집

엄마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이 법석 떠 모습 좀 보세요.



보세요. 엄마가 우리의 새로운
겨울 놀이울을 발명했어요!



이건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큰 것도 있습니다.

엄마는 바깥에서 많은 날들을 보냈어요.
2월의 추운 겨울밤에도 잠도 안 자고
이 사랑의 산물을 완성했지요.
그리고선 자랑스럽게 이 콘도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도 추위에 떨지 않고
야외 경치를 감상할 수 있게 됐어요.

다른 이들에 대한 보살핌

엄마는 그들(바깥의 새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날개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 여성 반려인은 정말 신비한 존재예요.
글쎄, 누구든지 사랑한다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녀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와 닮은 존재는 누구나 사랑하지요.....



불행한 친구들을 보면 우리도 가엾은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집 없는' 새들이요!







‘거.....위’하고 얘기하는 거야?

너무하잖아!

뭐, 좋아! 백.....조였군.

그런데..... 뭘 어찌려고?

(야생 새인데!!!)

왔다가..... 그냥 갈..... 건데 말야!!!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는 것도 나쁠 건 없지요.
그들이 우리랑 닮아서 뿌듯해요.
엄마가 그들을 사랑하는 건
그들이 집에 있는 우리처럼 날개가 있고 우리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닮아서요.....

아니면..... (그런 것도 아니네!!!)





조심하세요!

원숭이들한테 진드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얘는 또..... 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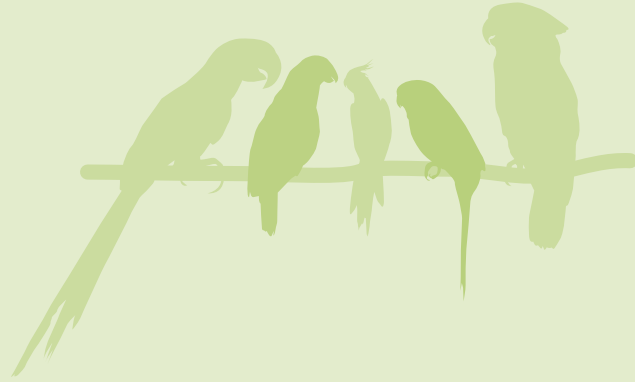
오, 세상에.....!
그녀는 심지어
꽃.....들까지 사랑해요!!!
그렇다면 그들도.....?
가족인 거야???

에필로그



여러분은 지구에 내려온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관련 정보



우리 동물 친구들과 소통하고 돌보는 법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다른 특별한 동물 반려들에 대한 스승님의 영감 넘치는 이야기들을 보시려면 다음 비디오테이프와 DVD를 참고하세요.

DVD 712 동물의 신성한 지성

20010605 미국 플로리다 센터

DVD 713 사랑이 스승이다

20010605 미국 플로리다 센터

DVD 718 사랑은 항상 좋다

20010607 미국 플로리다 센터

DVD 719 나쁜 습관 극복하기

20010609 미국 플로리다 센터

DVD 721 지혜안

20010604 미국 플로리다 센터

DVD 724 신실하고 순수한 마음

20010612~20010616 미국 플로리다 센터

DVD 725 겸손한 생활 방식

20011222~20011223 미국 플로리다 센터

DVD 726 무아의 동기

20011223 미국 플로리다 센터

DVD 730 사랑으로 소통하라

20011225, 20011226 미국 플로리다 센터

DVD 734 깨달은 스승의 사랑스런 감촉

20011226~20011227 미국 플로리다 센터

DVD 735 변화의 용기

20011228~20011230 미국 플로리다 센터

DVD 747 신선과 용의 후예-2002년 스승님 생신 경축 행사

20020511, 20020513 미국 플로리다 센터

DVD 780 내 인생의 개들과 새들

지구상의 모든 공동 거주자들에게 헌정함.

아마존
베스트셀러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의 저자

고귀한 야생

칭하이 무상사



제본: 양장 & 페이퍼백, 472페이지
책 크기: 21cm x 28cm
영문판, 중문판
(출판사: Love Ocean Creative International Company, Ltd.)

은 울감 있고 사색적인 어조의 우아한 글들이 책 전편에 흐르는 『고귀한 야생』. 대자연 속의 신의 창조물을 담은 눈부신 사진들이 그 빛을 더해 준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독자는 ‘여사’가 거주하며 귀한 야생 존재들의 방문을 받고 있는 아무라(Amoura)로 이동하게 된다.

이 ‘여사’는 다름 아닌 칭하이 무상사이다. 그리고 『고귀한 야생』은 단순하지만 깊은 감동이 어린 그녀의 또 다른 선물이다. 스승님이 집필은 물론 사진 촬영과 편집까지 하신 이 귀한 보석은 독특한 아름다움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 준다. 여기에서 독자들은 백조, 기러기, 다람쥐, 비버, 심지어 자그마한 달팽이에 이르기까지 야외에서 우리와 더불어 사는 존재들의 고귀한 영혼과 현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을 피하지만 ‘여사’에게는 사진 찍기를 허락하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다가가 다정한 여사한테서 좋아하는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까지 보여 준다. 여기서 전해지는 사랑은 그 무엇과도 다르다. 존엄과 은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영원만큼이나 심오하고 오래도록 이어진다.

인터넷 아마존닷컴 구입:

<http://www.amazon.com/Noble-Wilds-Supreme-Master-Ching/dp/9868415233/>

Love Ocean Creative International Company, Ltd.

B1 No. 3, Ally 30, Lane 78, 2nd section, Fu-Shin south road, Da An District, Taipei 10664, Taiwan, R.O.C.

Tel: 886-2-27065528 Fax: 886-2-27056288 www.loveoceancreative.com

이메일: info@loveoceancreative.com

칭하이 무상사의 영적 가르침



즉각 깨닫는 열쇠

칭하이 무상사 강연집.

어울락어(1-15), 중국어(1-10), 영어(1-5), 프랑스어(1-2), 핀란드어(1), 독일어(1-2), 헝가리어(1), 인도네시아어(1-5), 일본어(1-4), 한국어(1-11), 몽골어(1, 6), 포르투갈어(1-2), 폴란드어(1-2), 스페인어(1-3), 스웨덴어(1), 태국어(1-6), 티베트어(1).

즉각 깨닫는 열쇠-문답록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 중 문답 내용 수록.

어울락어(1-4), 중국어(1-3), 불가리아어(1), 체코어(1), 영어(1-2), 프랑스어(1), 독일어(1), 헝가리어(1), 인도네시아어(1-3), 일본어(1), 한국어(1-4), 포르투갈어(1), 폴란드어(1), 러시아어(1).

즉각 깨닫는 열쇠-1993년 세계 순회강연집 (6권 전집)

1993년 세계 순회강연 중에 하신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집.

영어, 중국어.

즉각 깨닫는 열쇠-특별 선철집

1992년 포모사 산디먼 선철 행사에서 하신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집.

영어, 어울락어.

사체지간의 편지

영어(1), 중국어(1-3), 어울락어(1-2), 스페인어(1).

신기한 감응

중국어(1-2), 어울락어(1-2).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한국어, 일본어, 태국어.

삶을 다채롭게

칭하이 무상사의 영적 가르침과 인용문 모음집.

영어, 중국어.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칭하이 무상사의 지혜 만화집

어울락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후광이 너무 꼭 쪼요!-칭하이 무상사의 깨달음이 담긴 유머집

영어/중국어.

쉽게 수행하는 비결

영어, 중국어.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평화의 길

1999년 유럽 순회강연 중에 하신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집.

영어, 중국어.

신과 인류의 이야기-성경 이야기를 통한 고찰

다양한 모임에서 스승님이 재해석해 주신 열세 가지 성경 이야기가 담긴 특별 선집.
영어, 중국어.

건강에 대한 깨달음-자연적이고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

영어, 중국어.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영적 가르침과 인용문 모음집.
아랍어, 어울락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몽골어, 폴란드어, 스페인어, 터키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감로법어

칭하이 무상사가 말씀하신 주옥같은 영원한 지혜.
영어/중국어, 스페인어/포르투갈어, 프랑스어/독일어, 한국어/영어.

무상 주방 (1)-전세계 채식 요리

동수들이 추천한 세계 각지의 진미·별미 요리집.
영어/중국어, 어울락어, 일본어.

무상 주방 (2)-가정식

영어/중국어.

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

1998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슈라인 강당에서 열린 자선 콘서트에 소개된 음악과 인터뷰 모음집.
영어/중국어/어울락어.

칭하이 무상사 예술 창작집

영어, 중국어.

S.M. 천의집 (6)

영어/중국어.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1-2)

5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두 권짜리 책은 스승님께서 당신의 반려견들의 멋진 실생활 이야기를 담아 출판하신 것이다.
어울락어(합본), 중국어, 영어(합본),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폴란드어(합본).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아름다운 일러스트로 꾸며진 사진과 이야기가 담긴 이 책을 통해 칭하이 스승님은 동물의 내면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 비밀을 알려 주신다.
어울락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고귀한 야생

스승님이 직접 사랑의 마음으로 구성하고 사진을 찍은 이 책에는 아름다운 시와 숨이 멎을 듯한 멋진 사진들이 가득 하다. 일지처럼 친밀한 이 이야기에서, 스승님은 호숫가를 탐험한 이야기를 해주시며 동물 친구들의 타고난 고귀한 품성에 대해 알려 주신다. 이는 여태껏 들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어울락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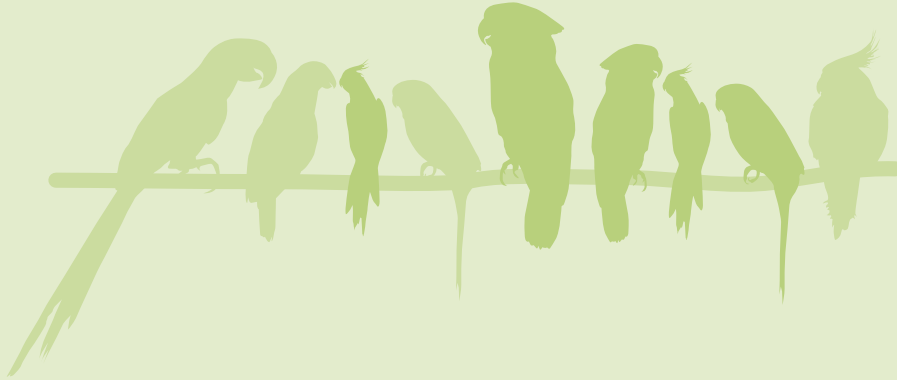
천상의 예술

이 걸작품을 통해 저자는 영적 시각에서 예술 창작품을 천국의 진선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신성과 공명하는 칭하이 무상사의 무한한 예술 세계로 초대되어 고양된 독자들은 시인의 깊은 감정, 화가의 섬세한 붓질, 디자이너의 독특한 발상, 그리고 음악가의 낭만적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영적 스승의 지혜와 자비심에 대해 알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영어, 중국어.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

아네즈 박사의 저서.
중국어.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침묵의 눈물

한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무자시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나비의 꿈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전생의 발자취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조약돌과 황금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잃어버린 기억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그 옛날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천년의 사랑

한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진정한 사랑

책과 MP4, 영어, 중국어.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책과 MP3, DVD, MP4, 중국어, 영어.

전생의 발자취 MP3(1, 2, 3). 어울락어.

사랑의 전설로 가는 길 MP3(1, 2, 3). 어울락어.

시공을 초월하여 MP3, DVD, MP4. 어울락어.

향기로운 손길 MP3. 어울락어.

지난날과 지금 MP3. 어울락어.

한밤의 꿈 MP3, DVD, MP4. 어울락어.

사랑으로 보살피 주세요 MP3. 어울락어.

영원히 간직해 주세요 MP3. 어울락어.

칭하이 무상사 창작 가곡 모음집 MP3, DVD, MP4.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사랑의 노래

칭하이 무상사가 시간을 초월해 사랑받는 노래들을 부르심. MP4. 어울락어, 영어.

보석 시집

MP3, DVD, MP4. 칭하이 무상사가 어울락의 저명한 시인들의 시를 어울락어로 노래하고 낭송하심.

황금 연꽃

MP3, DVD, MP4. 어울락어 시 낭송.

고대의 사랑

MP3, DVD, MP4. 어울락어 시 낭송.

MP3와 DVD, MP4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음악·콘서트가 담긴 MP3, DVD, MP4는 다음 언어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광둥어, 그리스어, 네팔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말레이어, 몽골어, 불가리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리즈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어울락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줄루어, 중국어 간체·번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히브리어 등. 카탈로그를 요청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언제나 바로 문의 주세요. 우리 서점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http://www.theCelestialShop.com>

에덴 동산 <http://www.edenrules.com> (중국어)

또는 다음 주소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전화: (886) 2-23759688

팩스: (886) 2-23757689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무료 견본책자 다운로드

즉각 깨닫는 열쇠 무료 견본책자 다운로드 (80개 언어)

<http://sb.godsdirectcontact.net>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주요 연락처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O.Box 9, Hsihu, Miaoli Hsien, Formosa (36899),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이메일: peace@SupremeMasterTV.com

전화: 1-626-444-4385 / 팩스: 1-626-444-4386

<http://www.suprememastertv.com/>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2-2375-9688 / 팩스: 886-2-2375-7689

<http://www.smchbooks.com>

경서 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온라인 상점

천상의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영어)

에덴 동산: <http://www.EdenRules.com> (중국어)

S.M. 셀레스티얼 주식회사

이메일: smclothes123@gmail.com, vegan999@hotmail.com

전화: 886-3-4601391 / 팩스: 886-3-4602857

<http://www.sm-cj.com>

러빙헛 인터내셔널

이메일: info@lovinghut.com

전화: 886-2-2239-4556 / 팩스: 886-3-2239-5210

<http://www.lovinghut.com/tw>

<http://www.lovinghutfood.com/tw>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054-535-9251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chinghaiyd@naver.com

전화: 054-532-5821 / 팩스: 054-532-5822

(해피요기·SM 보석·천의·만세등·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와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이나 인쇄용 포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구독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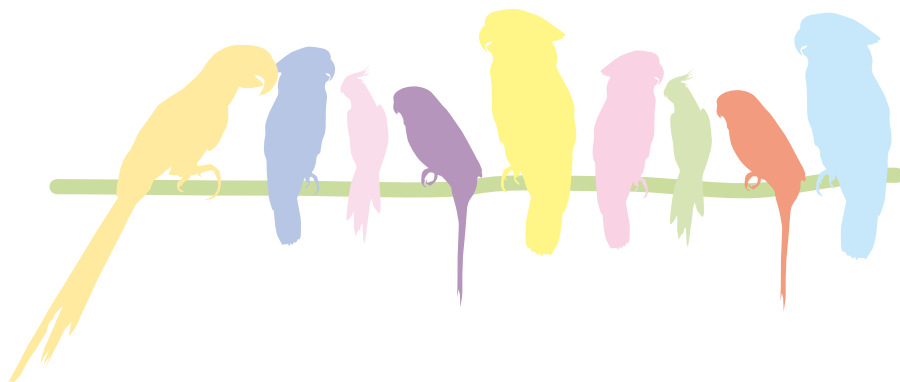


**비건 채식을 하고
평화를 이롭시다**



스승님께서는 다음 사람들의
세심한 지원에 감사하십니다.





Steven André, T. June, Vian Hang (사진 촬영)

Gary Lai, Annie Yu, Nadir Yen, Eve Lin, Pearl Huang, Jung-Eun Kim,

So-Young An, Hee-Gyoung Na, Sofia, Jackie (디자인편집)

Wang Bor Tang, Yu Hui-Chun, Gary Lai, Sofia, Luisa, Nadir Yen (그래픽 디자인)

Soon-Ha Kwon, Mi-Ra Nam, Hye-Yun Jung, Jin-Sub Byun (번역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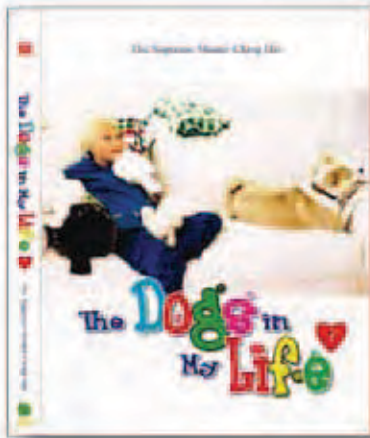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은
사람들의 마음의 꽃밭에
보다 많은 기쁨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The Dogs in My Life



양장본
1권: 264페이지
2권: 272페이지
크기: 21cmx28cm

“ 독자들이, 개들이 우리와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보고, 또한 그들을 통해 다른 존재들에 대해 좀더 많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칭하이 무상사

영문판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은 아마존닷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1)

<http://www.amazon.com/dp/9866895076/>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2)

<http://www.amazon.com/dp/9866895084/>

새로 출간된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1, 2)』은 칭하이 무상사가 직접 애정을 갖고 쓰고 디자인한 첫 번째 출판물이다. 이 책에서 독자들은 Benny, Lucky, Happy, Goody, Hermit 등의 이름을 가진 10마리 개 친구들이 보여 주는 사랑의 소박함, 진실된 우정의 기쁨을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학자, 과일광, 새침떼기 공주, 칩 어호이, 그림자 사냥꾼 등등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의 사연을 들어 보시길. 그들 모두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의 ‘반려인’에 대한 헌신은 절대적이다. 그들의 유머와 지성, 다른 많은 고귀한 품성들은 진실로 같은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을 읽어 보세요.
지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들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영문판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http://www.amazon.com/dp/9866895149/>

우리 웹사이트와 블로그
<http://mycelestialpets.com>
<http://www.godsdirectcontact.org/birds/>
<http://www.loveocean.org/dogs/>



대안적인 삶 Alternative Living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음식을 바꾸세요

우리 생명을
구해 주세요!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더 이상 죽이지 마세요
건강해지고 사랑을 베푸세요

영양이 풍부하고 생명을 구하는 음식의 예:

음식	단백질 함량 (중량 백분율)
두부 (원료: 콩)	16 %
글루텐 (원료: 밀가루)	70 %
옥수수	13 %
쌀	8.6 %
대두, 강낭콩, 병아리콩, 렌즈콩 등	10 - 35 %
아몬드, 호두, 캐슈너트, 헤이즐넛, 잣 등	14 - 30 %
호박씨, 참깨, 해바라기씨 등	18 - 24 %

- 농축 종합 비타민 정제/캡슐 또한 비타민, 미네랄, 산화방지 성분을 두루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 과일과 야채는 비타민, 미네랄, 산화방지 성분이 풍부하며, 고품질의 섬유질이 들어 있어 건강 유지와 장수에 좋습니다.
- 일일 단백질 권장량 : 50그램 (일반 성인 기준)
- 식물성 칼슘은 우유의 칼슘보다 흡수력이 더 좋습니다.

- 조류독감으로 인한 전세계적 유행병의 실질적인 위협을 줄이려면,
- 광우병 및 돼지 질병(PMWS 중후군) 등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 우리의 사랑스러운 가축들, 해양 생물, 조류 친구들이 매일 수십억씩 계속해서 끔찍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으려면,

평생 채식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 채식은 건강입니다
- 채식은 경제입니다
- 채식은 생태입니다
- 채식은 자비입니다
- 채식은 평화입니다
- 채식은 숭고합니다

여러분
장수하세요!



다리를 바꿀까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대안적인 삶 홈페이지(www.GodsDirectContact.or.kr/al), E-Mail: AL@GodsDirectContact.or.kr
생명사랑 채식실천협회(www.bevege.or.kr), 한국 채식연합(www.vege.or.kr)

건설적인 프로그램만 방송하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여러분 삶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 드립니다.

전세계에서 시청 가능한 24시간 인터넷 TV 생방송 - www.SupremeMasterTV.com/kr



세계적으로 유명한 채식주의

철학자, 영적 지도자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인도의 영적 교사), 소크라테스(그리스 철학자), 예수 그리스도, 공자(중국 철학자), 석가모니불, 노자(중국 철학자),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이탈리아의 가톨릭 성자), 틱낫한(베트남 불교 승려, 작가), 요기 마하리쉬 마헤쉬(인도 작가, 철학자, 초월명상 지도자), 레오 톨스토이(러시아 철학자), 피타고라스(그리스 수학자, 철학자), 자라투스트라(이란의 조로아스터교 창시자), 무하마드 라힘 바와 무하이야딘(스리랑카 이슬람 작가, 수피 성인), 불레 샤(무슬림 수피 성인) 등.

작가, 예술가, 화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이탈리아 화가), 랄프 왈도 에머슨(미국 수필가, 시인), 조지 버나드 쇼(아일랜드 작가), 존 로빈스(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미국 작가), 알버트 슈바이처(독일 철학자, 의사, 음악가), 플루타르크(그리스 작가), 볼테르(프랑스 작가), 사데크 헤다야트(이란 작가) 등.

과학자, 발명가, 엔지니어

찰스 다윈(영국 자연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독일 과학자), 토머스 에디슨(미국 과학자, 발명가), 아이작 뉴턴 경(영국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세르비아계 미국 과학자, 발명가), 헨리 포드(미국 포드 자동차 창립자) 등.

정치가, 사회운동가

수잔 B. 안토니(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인도 인권 지도자), 코레타 스콧 킹(미국 인권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부인), 야네즈 드르노프체크 박사(슬로베니아 제2대 대통령), 만모한 싱 박사(인도 총리), 테니스 J. 쿠치니치(미국 하원의원) 등.

배우, 영화 및 TV 스타

파멜라 앤더슨(미국 여배우), 애슐리 주드(미국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프랑스 여배우), 존 클리즈(영국 배우), 데이비드 듀코브니(미국 배우), 대니 드비토(미국 배우), 카메론 디아즈(미국 여배우), 대릴 한나(미국 여배우), 더스틴 호프만(미국 배우), 이안 맥켈런(영국 배우), 토비 맥과이어(미국 배우), 기네스 펠트로(미국 여배우), 호아킨 피닉스(미국 배우), 스티븐 시걸(미국 배우), 브룩 쉴즈(미국 모델, 여배우), 제리 세인펠드(미국 배우), 나오미 왓츠(호주 여배우), 케이트 윈슬렛(영국 여배우) 등.

팝스타, 음악가

조안 바에즈(미국 포크 가수), 조지 해리슨(영국 음악가, 비틀즈 멤버), 폴 매카트니(영국 음악가, 비틀즈 멤버), 링고 스타(영국 음악가, 비틀즈 멤버), 밥 딜런(미국 음악가), 마이클 잭슨(미국 팝스타), 모리세이(영국 가수), 올리비아 뉴튼 존(영국계 호주 가수), 시너드 오코너(아일랜드 가수), 핑크(미국 가수), 프린스(미국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미국 팝가수), 티나 터너(미국 팝스타), 샬리 웹(캐나다 가수), 바네사 윌리엄스(미국 팝가수) 등.

스포츠인

빌리 진 킹(미국 테니스 챔피언), 빌 월튼(미국 농구 선수), 칼 루이스(미국 올림픽 육상 9관왕), 에드윈 C. 모제스(미국 올림픽 육상 2관왕), 엘레나 발렌지크(독일 권투 챔피언), 알렉산더 다르가츠(독일 운동 선수, 세계 보디빌딩 챔피언, 의사) 등.

모델

크리스틴 브링클리(미국 슈퍼모델), 크리스티 틸링턴(미국 슈퍼모델) 등.

www.GodsDirectContact.or.kr/vg-vip에서 더 많은 채식주의 유명인사의 명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펴낸곳: SM출판사

주소: 경북 상주시 모서면 호음3길 205번지

전화: (054) 535-9251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웹사이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출판 신고: 제511-5110000251002006000002호 2006년 3월 7일

이 책의 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출판사의 사전 허락을 얻으면 이 출판물의 내용을 복제해도 좋습니다.



******* “이 책은 새들의 본성에 관한 심오한 느낌과 함께 방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크리스탈:**

이 책을 읽게 되어 행운이라 느낀다. 22종류의 새들 가운데 일부 새들은 특별한 의미가 담긴 이름을 얻었다. 예를 들어 Brighty, Sunny, Cheery라는 이름은 새들이 행복하고 기분 좋은 삶을 누리도록 붙여진 것이다. Free Joy는 항상 삶에 대해 들떠 있는 반면 Mei Mei는 지적인 면으로 인해 그런 이름을 얻었다. 새들마다 개성이 독특하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하고 유익한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읽었으면 한다. 소장용 내지는 가족이나 자녀에게 선물할 책을 고르는 중이라면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 “애완용 새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멋진 선물”-제니퍼 L.:**

이 책은 새들마다 각기 나름의 개성과 인격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들의 지성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명확히 표현할 줄 안다. 또한 놀랍고 사랑이 넘치는 창조물이다. 애완용 새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 봐야 할 책이다.

******* “아름다운 여행”-맷츠118:**

신이 만드신 깃털 달린 창조물의 영혼과 마음속으로 떠나는 아름다운 여행. 다양한 색채로 가득 차 있고 페이지마다 예술 작품이다. 감사하다.

*******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LT/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칭하이 무상사가 쓴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은 독자들을 사랑과 기쁨이라는 색다른 차원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책이다. 사랑은 인간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같은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다른 창조물한테까지 펼쳐진다. 이 책의 각 주인공들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웃음으로 채워 줄 때 기쁨의 감정이 솟아오른다. 아름다운 책이며, 칭하이 스승님은 경이롭고 아름다우며 사랑이 많은 여성이다.

이 책은 모든 연령층의 독자들이 즐겁게 읽을 수 있으며, 집에 소장할 책으로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다.

******* “빛 속의 생활”-S. 마이스너:**

명절 선물로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멋진 책이다. 특히 어린이용으로 훌륭하다. 우리 딸도 너무 좋아한다!!

******* “내 가슴을 울리다”-‘갤럭시’/ 멕시코 빅토리아:**

칭하이 무상사의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에 정말 감동받았다! 반드시 읽고 즐겨야 할 책이다.

******* “훌륭한 명절 선물”-미윤/ 미국:**

돈이 아깝지 않다! 사진 품질도 뛰어나다. 또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예쁜 시들이 담겨 있다. 각 새들의 삶과 개성, 그들이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등 독특한 이야기들이 있다.

******* “경이로움!”-린다 G./ 미국 일리노이:**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은 현대 독자들에게 진정 괄목할 만한 책으로서, 새들의 내적 세계에 대한 비밀을 벗겨 주고 그들이 꾸밈없는 감정과 신성한 존엄성을 가진 감동적인 존재임을 알려 준다. 이 책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나 미국 원주민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과 깃털 달린 친구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 준다. 정말이지 깨달은 존재가 이 세상에 주는 귀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운 책을 놓치지 말 것!”-준/ 홍콩:**

칭하이 무상사의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같은 책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으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세상을 알게 되었다.

******* “우리 딸에게 좋은 책”-진 톰린/ 미국 뉴멕시코:**

정말 마음에 든다! 아주 재미있고 사랑이 가득하다. 우리 딸도 아주 좋아한다! 가장 멋진 생일 선물이었다고 한다!

*******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론/ 미국 캘리포니아 코로나:**

대단히 멋진 책이며, 인간과 새들 간에 다리를 놓아 준다. 칭하이 무상사는 이 새들이 가진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 준다. 새들마다 독특한 개성이 있으며 우리처럼 소망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내가 아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추천해 준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책이다.

******* “아주 재미있으며, 새들에 관해 배우고 알 수 있는 책”-T. N./ 미국 텍사스 휴스턴:**

아주 좋았다.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 내가 그랬듯이, 새들의 세계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새들의 삶과 습관에 대해 좀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이 재미있는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이라는 책-민후이/ 미국 플로리다 탬파:**

칭하이 무상사가 쓴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며 매력적이다. 책에 나오는 칭하이 무상사와 새들 간의 특별한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다. 집에서 새나 개를 키우고 있진 않지만 칭하이 무상사와 이 새들이 너무 맘에 들어서 책을 계속 소장할 것 같다.

******* “와! 시인 새!”-‘황금시대 빛’/ 미국 텍사스:**

이 책은 사랑스런 새들의 내적 아름다움과 지성에 대해 눈과 마음을 열어 준다. 시인 새인 Laguna의 시는 정말 놀랍고도 깜찍하다! 그녀는 저자의 머리카락을 가리켜 “황금색 깃털.....”이라고 묘사한다.

아이들, 또는 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이 책과 사랑에 빠질 것이다.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적극 추천한다!

*******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멋진 책”-루이 왕:**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책을 좋아한다. 우리 집 막내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잠자리 책이다.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막내는 이 책을 거의 다 읽을 수 있는데, 몇 번이고 읽는다. 내가 이 책을 좋아하는 것은 색채가 다양한 가닭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이 책이 전하는 사랑과 자비의 메시지 때문이다. 책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곤 한다.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에 대한 독자들의 감명 깊은 서명을 좀더 보시려면 www.amazon.com 을 방문해 주세요.





애완동물이 있다면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럼 그들이 여러분을 자신들의 세계로 이끌어 줄 겁니다.
태초부터 비밀스럽게 수호받아 온 세계로요!

나는 우리 모두가 새들과 같은 다른 존재들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처럼 대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감정적 관계와 자신이 처한 분위기에 대
단히 민감합니다.

반려와 친구는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 그 자체가 되기도
하지요. 그들의 충성심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반려를 잃을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새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모두 새들의 감정을 고려하고 그들의 존귀함과 사
랑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칭하이 무상사